

2016

GLOBAL HUNGER INDEX

기아가 없는 세상



2016

GLOBAL HUNGER INDEX

기아가 없는 세상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Klaus von Grebmer, Jill Bernstein, Nilam Prasai, Shazia Amin, Yisehac Yohannes

Concern Worldwide:

Olive Towey, Jennifer Thompson

Welthungerhilfe:

Andrea Sonntag, Fraser Patterson

United N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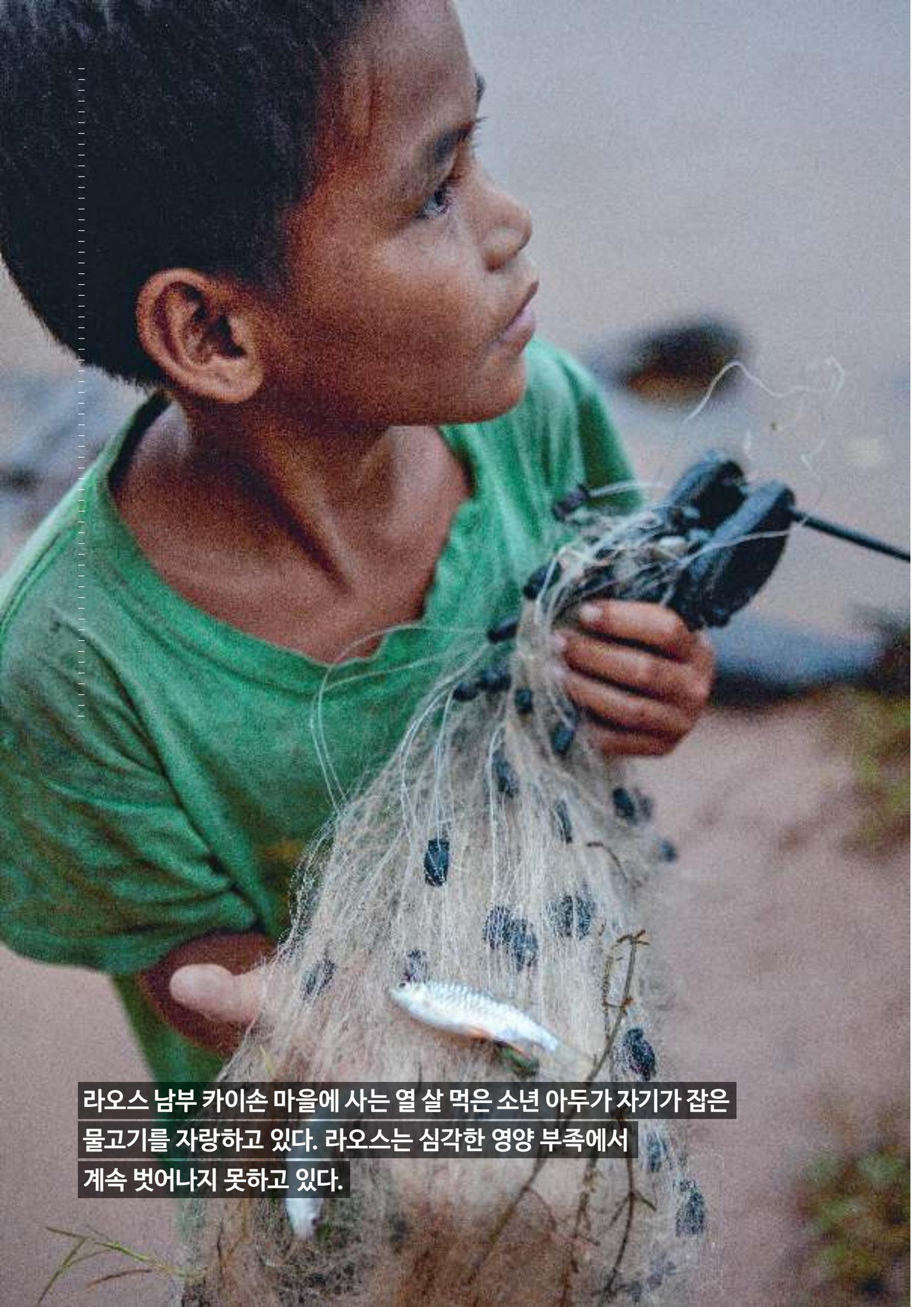
David Nabarro

Washington, DC/Dublin/Bonn

2016년 10월

A Peer-Reviewed Publication





라오스 남부 카이손 마을에 사는 열 살 먹은 소년 아두가 자기가 잡은 물고기를 자랑하고 있다. 라오스는 심각한 영양 부족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FOREWORD

바로 일 년 전, 전 세계는 뜻을 모아 역사에 남을 중요한 일을 해냈다. 2015년 9월, 전 세계 지도자들은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곧 빈곤과 기아를 영원히 몰아내겠다는 정치 선언을 채택하고 서약했다. 새로운 지속가능발전의제는 포괄적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모든 나라의 책임이지만 각국은 자국의 요구와 정책에 따라 목표를 수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속가능발전의제는 변화를 추구한다. 지구를 보호하면서 빈곤과 기아를 단번에 근절하는 행동을 제안하기 때문이다. 지속가능발전의제는 통합적이고 분할되지 않는다. 정부의 각급 부처와 민간 부문에서 두루 일맥상통한 정책과 협력을 요구하되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 모든 목표를 통합적 방식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지속가능발전의제의 핵심이자 전체를 아우르는 전제는 인류의 자유와 기본 권리가 평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아무도 저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하지만 약속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 결연하게, 집중해서, 근거를 바탕으로 행동해야 한다. 21세기에 세계 기아라는 재앙을 마침내 근절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와 컨선월드와이드, 세계기아원조(WHH)가 공동으로 발행하는 2016 세계기아지수(GHI) 보고서를 보면 2000년부터 개발도상국의 기아 수준이 29퍼센트 감소했다. 이런 진척에도 불구하고 세계 기아 수준은 비참할 정도로 높다. 7억 9,500만 명은 여전히 굶주리며 대략 아동 네 명 중 하나는 발육 부진이고 아동의 8퍼센트가 허약 아동이다.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는 올해로 11번째 세계 기아를 다각도에서 측정하는 세계기아지수를 산출해서 분석한다. 연간 세계기아지수 보고서는 나라별로 전 세계 기아 상태를 추적하여 가장 시급히 기아에 대처해야 할 지역과 나라들을 집중 조명한다.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와 기후변화 분야 유엔 사무총장 특별보좌관 데이비드 나바로가 작성한 올해 기고문은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를 소개한다.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는 앞으로 14년 동안 인권을 우선하고 여권을 신장하고 악영향을 끼치는 기후변화를 해결하여 지상에서 가장 취약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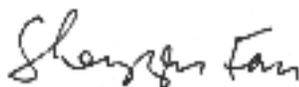
극빈자들이 빈곤과 기아를 극복할 수 있게 전 세계가 힘쓰자는 분명한 목표를 세운 실행 계획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핵심은 2030년까지 기아와 세계 빈곤을 근절하겠다는 새로운 다짐이다. 지속가능발전의제는 “기아를 근절하고 식량 안보와 영양 개선을 이루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진흥한다”는 목표 2를 비롯한 16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통하여 사회 정의에 이바지하고 농촌의 빈곤을 근절하고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행동,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찾아가 돕는 행동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정부는 이제 굳건하고 지속적으로 행동하겠다는 정치적 의지와 다짐으로 목표를 완수해야 한다. 기아의 기저원인은 간단하지 않고 빈곤, 불평등, 폭력, 대립, 질병, 기후 변화와 뗄 수 없이 얽혀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의제는 다자와 다층이 협력하는 총체적 발전상을 제시한다. 지속가능발전의제는 농업과 식량 체계를 전혀 새롭게 다룬다. 곧 식량 체계에 끼치는 폭력적 대립, 자연재해, 기후 변화의 영향을 검토하고, 빈곤과 기아를 고착화하는 구조적 원인에 맞서는 행동을 촉구하고, 국가적으로 혹은 국제적으로 방치하다시피 한 젠더 평등과 여성과 소녀의 권리 증진에 주안점을 둔다. 끝으로 지속가능발전의제는 목표를 이루는 책임이 국가 정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가 목표를 이루려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야 할 뿐 아니라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고 후속 조치와 검토 절차를 투명하고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가 이룬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 자주 기아와 영양 부족이라는 비참한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기후 관련 재난과 파괴와 추방을 초래하는 무력 충돌만 식량 체계를 무너뜨리면서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 대대로 일상생활로 굳어진 빈곤과 기아도 심각한 타격을 주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런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를 수용하여 기아를 근절하고 아무도 저버리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환경을 지키는 권리와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



Dr. Till Wahnbaeck
Chief Executive Officer
Welthungerhil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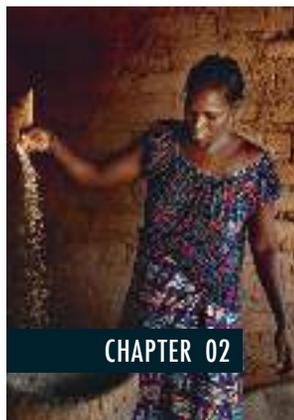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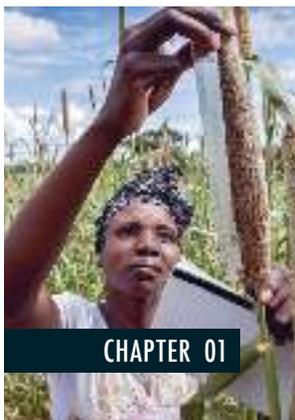


Dr. Shenggen Fan
Director General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Dominic MacSorley
Chief Executive Officer
Concern Worldwide

CONTENTS



SUMMARY	5
CHAPTERS	
01 세계기아지수란 무엇인가	6
02 세계와 지역, 국가 트렌드	10
03 세상의 변혁: 어떻게 지속가능발전목표로 기아를 근절할 것인가	22
04 정책 권고	28
PARTNERS	30

SUMMARY

2000년부터 개발도상국의 기아는 상당히 많이 놀랍게 감소했다. 2016 세계기아지수(GHI)를 보면 개발도상국 전체 기아 수준은 29퍼센트 감소했다. 그러나 고르게 감소하지 못하고 지역과 국가뿐 아니라 한 국가 안에서도 큰 격차가 이어지고 있다. 아무도 저버리지 않으면서 기아를 근절하겠다는 지속가능발전목표 2(SDG2)를 이루려면 기아와 영양 부족에 가장 취약한 지역과 국가, 인구를 알아내야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세계기아지수(GHI)는 지역과 국가마다 상당히 다르다. 지역을 보면 세계기아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 따라서 기아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여전히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과 남아시아 지역이다. 두 지역의 세계기아지수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하락했지만 현재 수준은 여전히 심각한 단계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보통 단계보다는 위험한 단계에 더 가깝다. 나아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은 2000년부터 절대적 개선이 가장 크게 이루어졌고 남아시아 지역에서도 기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지만 2030년까지 기아를 근절하려면 전 세계는 두 지역의 기아 감소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기아가 심각한 수준이거나 위험한 수준인 나라는 50개국이다. 세계기아지수에서 위험한 수준에 해당하는 7개국의 대부분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다. 올해는 극히 위험한 기아 수준으로 분류된 나라는 없지만 기아 수준이 그만큼 높은 나라는 여전히 존재할지도 모른다.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탓에 13개국은 2016 세계기아지수를 산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유효한 자료, 기아와 영양실조 전문 국제단체기관에서 제공한 정보, 기존 문헌에 따르면 부룬디, 코모로스, 콩고민주공화국, 에디트레아, 리비아, 파푸아뉴기니,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시리아아랍공화국 10개국은 주의 깊게 주목해야 할 국가들이다. 10개국은 세계기아지수가 없고, 특히 이중 몇몇 나라는 아동의 영양 부족과 사망률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으므로 식량 안보와 영양 자료를 분석해서 최대한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2000년에서 2016년까지 세계기아지수가 50퍼센트 이상으로 감소한 나라는 22개국에 이른다. 기아 수준이 심각하고 위험한 단계인 나라들에서 가장 큰 백분율 감소를 보인 세 나라는 미얀마, 르완다, 캄보디아이다. 세 나라 각국의 2016 세계기아지수는 2000년에 비해서 50퍼센트 이상 감소했다. 세 나라는 모두 최근 수십 년 이래 내전과 정치 불안 겪었고, 이러한 지수의 감소는 부분적으로는 증가된 안정을 반영하기 때문일 것이다.

2016 세계기아지수가 매우 높은 국가들, 따라서 기아 수준도 매우 높을 뿐 아니라 백분율 감소가 비교적 낮은 나라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차드이다. 두 나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전 세계적으로 기아가 줄어든 주목할 만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폭력적 대립, 방만한 통치, 농업에 악영향을 주는 기후변화에 의해 지구는 계속 기아로 몸살을 앓고 있어 변혁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

국내 지방이나 주 단위에서 개별 세계기아지수 지표를 검토하면 절대값과 시간차 변화에서 국내 격차가 나타난다. 세계기아지수 지표의 차이는 세계기아지수단계표(GHI Severity Scale)의 모든 단계의 국가에 존재한다. 전국적으로 기아와 영양 부족 수준이 낮은 국가들의 국내 자료를 검토하면 낙후된 곳을 찾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와 요르단은 주별 발육부진율이 상당히 큰 격차를 보인다. 반대로 세계기아지수단계표에서 위험한 수준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국내 자료를 검토하면 위기에 처한 곳을 포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잠비아와 시에라리온은 국내에서 세계기아지수 지표가 큰 격차를 보인다. 2000년부터 세계기아지수가 인상적으로 감소한 캄보디아는 지방별 발전 격차를 보인다. 이 같은 국내 발전 격차 사례들은 국가 안에서 기아가 줄지 않는 구체적인 원인, 상황, 난점을 더 깊게 연구하는 발판을 마련한다.

올해의 기고문에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와 기후변화 분야 유엔 사무총장 특별 보좌관 데이비드 나바로는 변혁적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획 곧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를 제시한다. 지속가능발전의제는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통해 오늘 우리가 직면한 가장 끈질긴 불운의 얽히고 설킨 기저원인을 지목하고 2030년까지 인류의 기아와 영양실조를 근절하는 야심 찬 목표를 세운다. 지속가능발전의제에 따르면 기아와 영양 부족만 해결해서는 기아와 영양 부족을 영영 근절할 수 없고 근본적인 구조 문제뿐 아니라 특히 국민층에 악영향을 주는 기후변화도 해결해야 기아와 영양 부족을 근절할 수 있다.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를 이행하면 기아 근절을 가장 효과적으로 확실히 빠르게 이룰 수 있다. 4장에서는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를 바탕으로 기아 근절에 박차를 가하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강력히 추천한다. 여기에 수록된 권고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다음 넷이다. 정부 전체가 기아 근절에 주력한다. 식량 체계를 변혁한다. 사회 전체가 빠짐없이 참여한다. 국제기관과 국가 정부에 책임을 맡기고 감시한다. 기아 근절은 야심차게 접근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뜻과 힘을 합치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고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다.

01

한 여성이 짐바브웨 트솔로트소 지구 파머필드농업학교 시범농장에서
가뭄방지작물 수수의 길이를 측정하고 있다.

이곳 여성들은 가뭄을 이기고 더 나은 미래에 번영할 수 있는
새로운 농업 기술을 시행한다.

세계기아지수란 무엇인가

세계기아지수(GHI)는 세계, 지역, 국가 차원에서 기아를 포괄적으로 측정하고 추적, 관측하는 도구다.¹ 해마다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는 세계기아지수를 산출하여 기아와 싸워서 거둔 발전이나 실패를 평가한다. 기아와 싸워야 한다는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것이 세계기아지수의 목적이다. 우리는 전 세계가 기아 문제를 알리는 이 보고서를 읽고 물심양면으로 힘써 기아를 근절하길 간절히 바란다. 우리는 2030년까지 기아를 근절하고 식량 안보를 이루는 영양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진흥하겠다는 목표 2를 포함하여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해야 한다. 콤팩트 2025 같은 글로벌 이니셔티브들은 2025년까지 전 세계에서 기아를 근절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더 노력하고 자원을 더 동원하지 않으면 목표를 이룰 수 없다. 우리는 '가능한 일은 가능하다'라는 금언을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기아를 재빨리 단번에 근절하도록 세계 기아를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측정한다.

기아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여러가지 용어가 기아의 다양한 형태를 설명한다(Box 1.1).

세계기아지수는 다음 네 가지 지표를 근거로 기아의 다차원적인 성격을 포착한다:

- 1. 영양 결핍:** 전체 인구 중 영양 결핍에 걸린 사람의 인구 비율(칼로리 섭취가 부족한 인구수를 반영한다.)
- 2. 허약 아동:** 체중이 가벼운 5세 미만 아동의 비율(즉 신장에 비해 체중이 가벼운 것으로 급성 영양실조의 지표이다.)
- 3. 발육 부진 아동:** 발육이 부진한 5세 미만 아동의 비율(즉 나이에 비해 신장이 작은 것으로 만성 영양실조의 지표이다.)
- 4. 영·유아 사망률:** 5세 미만 영·유아의 사망률(불충분한 영양 섭취와 불결한 환경의 치명적인 상승효과를 부분적으로 반영한다.)²

이 네 가지 요소를 묶어서 기아를 측정하면 여러 이점이 있다(Figure 1.1). 이 방법은 인구 전체의 영양 실태뿐 아니라 아동의 영양 실태까지 잘 보여준다. 아동은 특히 취약한 계층으로 식사를 통한 열량이나 단백질, 미량영양소(필수비타민과 미네랄)가 부족하면 질병이나 신체적, 인지적 발달 저하, 사망에 이를 공산이 크다. 세계기아지수에 아동의 저체중과 발육 부진을 포함하면 급성 영양실조와 만성 영양실조를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그 밖에 따로 측정하는 여러 지표를 통합하여 세계기아지수의 무작위적 측정 오차를 최소화했다.

BOX 1.1 기아란 무엇인가

기아란 대체로 식량 부족과 연관된 고통을 뜻하는 말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식량 결핍 곧 하루에 1,800킬로칼로리를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영양 결핍으로 규정한다. 이는 일반인이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저 기준이다.*

영양 부족은 칼로리 섭취를 넘어서 열량이나 단백질, 필수비타민과 미네랄에서 어느 것 하나 또는 전부 부족하다는 뜻이다. 영양 부족은 질이나 양에서 음식 섭취가 불충분하거나 감염이나 기타 질병으로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거나 이 두 가지 원인이 결합해서 일어난다. 집에 식품이 부족하다든지 어머니의 건강이 나쁘다든지 자녀 양육이 부실하다든지 의료 서비스와 깨끗한 물,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든지 영양 부족을 초래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영양실조는 영양 부족(결핍 문제)과 영양 과잉(미량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을 적게 섭취하는 것 여부와 관련해 칼로리를 과다 섭취하는 불균형한 식사 문제)을 아우르는 더 포괄적인 용어이다.

이 보고서에서 '기아'란 네 가지 지표에 바탕을 둔 지수를 말한다. 네 가지 지표는 모두 칼로리 결핍뿐 아니라 미량영양소 결핍까지 반영한다. 따라서 세계기아지수는 기아의 양면을 모두 반영한다.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인구를 나이와 성별로 구성하여 신체 활동이 많지 않을 때 개인에게 필요한 최소 에너지 평균을 산출한다. 2014-2016년 사이 개발도상국에서 최소 에너지 평균은 일인당 하루 대략 1,650킬로칼로리에서 1,900킬로칼로리 이상으로 국가별로 다양하다(FAO 2016c). 각국의 낮은 신체 활동 최소 에너지 평균은 영양 결핍 추산에 이용한다(FAO, IFAD, and WFP 2015)

세계기아지수는 Box 1.2에서 설명한 절차에 따라 산출한다. 현재 사용하는 공식은 2015년에 도입한 것으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사용한 기존 공식을 개정했다. 두 공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표 값을 표준화한 것과 저체중 아동을 발육 부진 아동과 허약 아동으로 대체한 것이다(Wiesmann et al. 2015).

¹ 세계기아지수의 배경 정보는 Wiesmann(2006a) 참조.

² 최근 추산에 의하면 5세 미만 아동의 45퍼센트가 영양 부족으로 사망한다(Black et al. 2013).

FIGURE 1.1 세계기아지수 구성 요소



출처: Wiesmann et al. (2015).

주: 구성 지표 네 가지는 표준 값이다. 완전한 GHI 공식은 부록 A를 참고하라.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영양 불량 자료 출처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이다. 영·유아 사망률 자료 출처는 유엔 영·유아사망률추정합동기구(UN IGME)이다. 아동 영양 부족 자료의 출처는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은행, 유니세프이다.

2016년에는 네 가지 구성 지표를 모두 구할 수 있고 기아 측정 효용이 가장 큰 118개국의 세계기아지수를 산출했다. 기아가 크게 만연하지 않은 일부 고소득 국가의 세계기아지수는 산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고소득 국가조차 인구의 일부 계층에서 기아는 시급한 문제이다. 불행히도 고소득 국가 대부분은 영양 결핍, 허약 아동, 발육 부진 아동의 분포를 정기적으로 수집하는 국가 자료가 없다. 보통 이런 국가에서 영·유아 사망률 자료는 구할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과 달리 선진국의 영·유아 사망률은 영양 부족을 꼭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까닭으로 고소득 국가 대다수의 세계기아지수는 산출하지 않았다.

세계기아지수는 네 가지 구성 지표 자료의 시점과 일치한다. 올해 세계기아지수는 2011년과 2016년 사이에 수집한 최신 국가 단위 자료를 반영한다. 따라서 2016 세계기아지수는 2016년 한 해의 기아 실태만 포착한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의 기아 수준을 반영한다.

부룬디, 코모로스, 콩고민주공화국, 에리트레아, 파푸아뉴기니, 남수단, 수단, 시리아 같은 일부 국가의 세계기아지수는 영양 결핍에 관한 자료가 불충분해서 산출하지 못했다.³ 그러나 수집 가능한 구성 지표 자료는 모두 2장의 박스 2.1과 부록 C에 수록했다. 우리는 박스 2.1에서 자료가 부족하지만 기아 상황이 심각하다고 믿는 국가들을 소개했다.

세계기아지수의 근거가 되는 출처 자료는 자료를 수집하는 유엔 기관들이 계속 개정하며 세계기아지수 보고서는 해마다 개정 자료를 반영한다. 개정 자료를 반영한다는 것은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발행 연도가 다른 세계기아지수 보고서를 서로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올해 보고서는 2016 세계기아지수와 1992년, 2000년, 2008년의 세계기아지수를 포함하는데, 이 3개 연도의 수치는 개정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했다. 국가나 지역의 발전 추이를 확인하려면 이 보고서에 수록된 1992년, 2000년, 2008년, 2016년 세계기아지수를 비교하면 된다.

³ 식량농업기구는 아직 2011년에 독립한 남수단과 현재 수단의 영양 부족 자료를 분리해서 제공하지 않는다(FAO 2016c).

BOX 1.2 세계기아지수 산출 개요

세계기아지수는 세 단계로 산출한다.

첫째, 각국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네 가지 구성 지표 값을 구한다. 네 가지 지표는 영양 결핍, 허약 아동, 발육 부진 아동, 영·유아 사망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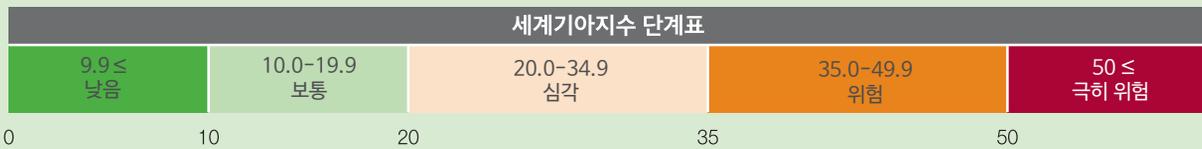
둘째, 네 가지 구성 지표 각각에 표준 점수를 부여한다.

셋째, 표준 점수를 합산해서 각국의 세계기아지수를 산출한다.

이렇게 산출한 세계기아지수는 100점이 기준이다. 0점은 (기아가 없는) 최고 점수이고 100점은 가장 나쁜 점수이다. 실제로 양 극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0점은 한 국가 안에서 영양 상태가 불량한 인구가

한 사람도 없고 5세 미만의 허약한 아동이나 발육이 부진한 아동이 한 사람도 없고 5세 생일을 맞기 전에 사망하는 어린이가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이다. 100점은 한 국가의 영양 결핍, 허약 아동, 발육 부진 아동, 영·유아 사망률 수준이 각각 최근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관측한 가장 높은 수준이란 뜻이다(세계기아지수를 산출하고 해석하는 방법은 부록 A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아래 표는 낮은 단계에서 극히 위험한 단계까지의 기아의 단계와 각 단계별 세계기아지수를 보여준다.



출처: 필진.

올해 보고서에 나타난 1992년, 2000년, 2008년, 2016년 세계기아지수에는 네 가지 구성 지표의 최신 개정 자료를 반영했다.⁴ 원 자료를 수집할 수 없는 곳은 활용 가능한 최근 자료를 근거로 세계기아지수 구성 지표를 추산했다(1992년, 2000년, 2008년, 2016년 세계기아지수를 산출한 출처 자료에 대한 배경 정보는 부록 B에서 자세히 설명했다). 이 보고서에서 세계기아지수를 산출하는 데 사용한 네 가지 구성 지표의 자료 출처는 다음과 같다.

영양 결핍: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자료를 사용해 1992년, 2000년, 2008년, 2016년 세계기아지수를 산출했다. 2016 세계기아지수의 영양 결핍 자료와 추계는 2014-2016년 자료이다(FAO 2016c, 필진의 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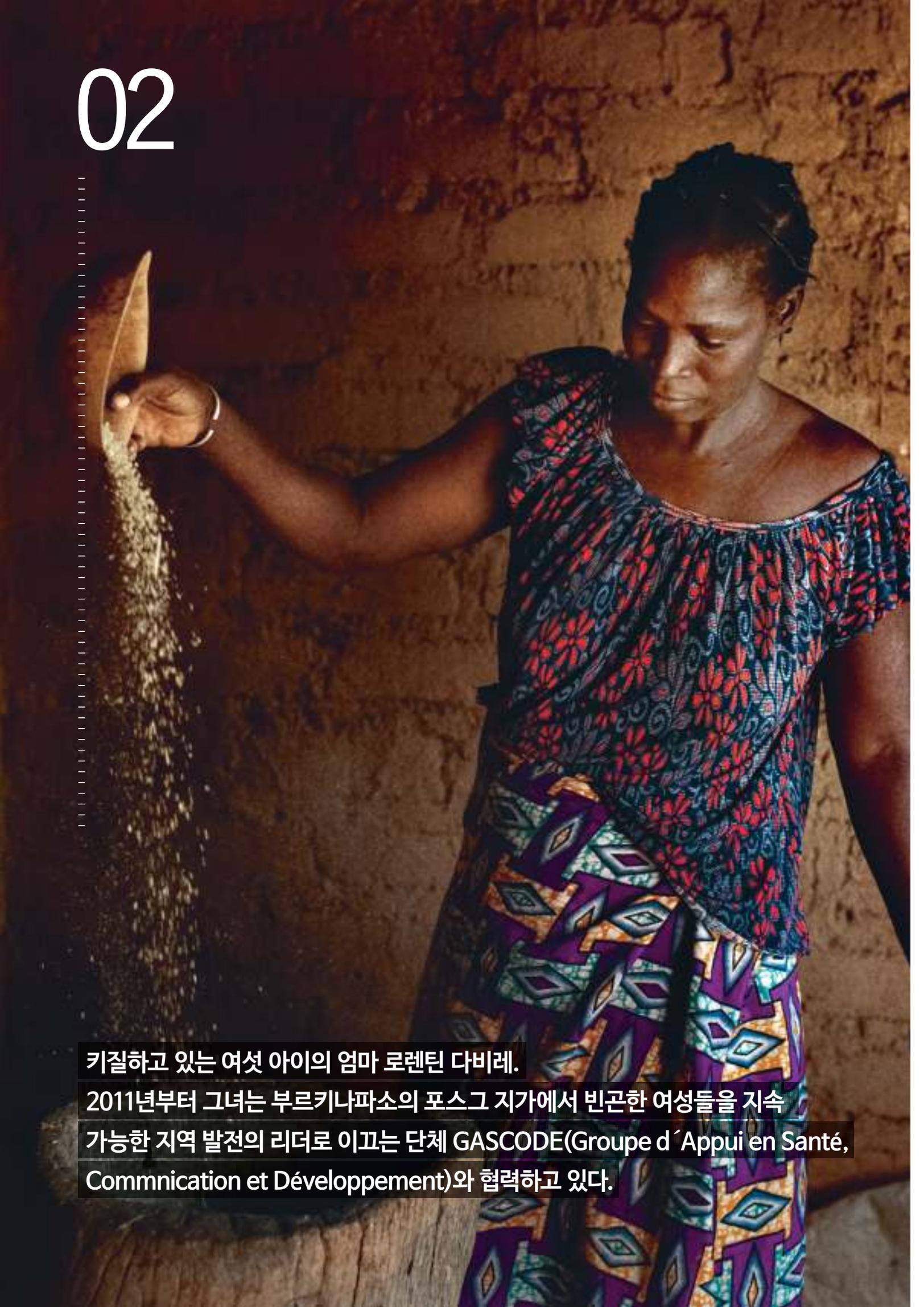
허약 아동과 발육 부진 아동: 세계기아지수의 아동 영양 부족 지표(허약 아동과 발육 부진 아동)는 유니세프(UNICEF),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은행의 공동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이용하고 세계보건기구가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아동성장과영양실조세계데이터베이스, 최신 인구보건조사(DHS), 복합요인조사(MICS) 보고서, 유니세프 통계표 자료를 추가로 이용했다. 2016 세계기아지수의 허약 아동과 발육 부진 아동에 관한 자료는 2011-2015년 최신 자료이다(유니세프/세계보건기구/세계은행 2016, 세계보건

기구 2016, 유니세프 2016a, 유니세프 2013, 유니세프 2009, MEASURE DHS 2016, 필진의 개산).

영·유아 사망률: 유엔 영·유아사망률추정합동기구(UN IGME)가 갱신한 자료를 근거로 1992년, 2000년, 2008년, 2016년 세계기아지수를 산출했다. 2016 세계기아지수 영·유아 사망률은 2015년 자료이다(UN IGME 2015).

세계기아지수는 입수 가능한 최신 자료를 이용한다. 그럼에도 기아와 영양 부족에 관한 중요한 통계 보고에 시차와 자료의 부족이 존재한다. 최신 자료가 필요하며 거의 실시간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첨단 기술에도 불구하고 더 폭넓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자료가 여전히 시급히 필요하다. 기아와 영양 부족에 관한 고품질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면 세계 기아 실태를 더욱 완전하고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기아와 영양 이니셔티브와 그 효과의 관계를 더욱 이해하고, 세계 기아와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를 근절하는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조직할 수 있을 것이다.

⁴ 이전 세계기아지수 산출은 von Grebmer et al(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IFPRI/WHH/컨선(2007), Wiesmann(2006a, 2006b), Weismann, Weingärtner, and Schäninger(2006)를 참조.

A woman with dark skin and her hair pulled back is shown from the waist up, pouring a stream of light-colored grain from a wooden bowl held in her right hand. She is wearing a vibrant, multi-colored patterned dress with geometric and floral motifs in shades of blue, red, purple, and yellow. The background is a textured, earthy brown wall. The lighting is warm and focused on the woman and the falling grain.

키질하고 있는 여섯 아이의 엄마 로렌틴 다비레.

2011년부터 그녀는 부르키나파소의 포스그 지가에서 빈곤한 여성들을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리더로 이끄는 단체 GASCODE(Groupe d'Appui en Santé, Commnication et Développement)와 협력하고 있다.

세계와 지역, 국가 트렌드

2016 세계기아지수(GHI)를 보면 개발도상국의 기아는 상당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개발도상국의 2000 GHI는 30점인 반면 2016 GHI는 21.3점으로 29퍼센트가 감소했다(Figure 2.1).¹ 이 같은 발전은 2000년부터 GHI 각 지표, 곧 영양 결핍 만연, 발육 부진 아동(나이에 비해 저신장), 허약 아동(신장에 비해 저체중), 영·유아 사망률이 감소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2장에서 보게 되듯이 지역과 국가, 국내 지방 단위에서 기아 수준의 격차는 크고 기아 감소의 정도가 불균형하다. 아무도 저버리지 않고 기아를 근절하자는 지속가능발전목표 2(SDG2)를 달성하려면 기아와 영양 부족에 가장 취약한 지역과 국가, 인구를 찾아내서 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세계기아지수에 쓰는 지표로 보면 영양 결핍 인구 비율은 2000년부터 18.5퍼센트에서 13.1퍼센트로 감소했다. 발육이 부진한 5세 미만 아동은 2000년 37.8퍼센트에서 28.1퍼센트(4분의 1 이상)로 감소했고, 저체중 아동은 2000년 9.9퍼센트에서 8.4퍼센트로 약간 감소했다. 끝으로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은 2000년 8.2퍼센트에서 2015년 4.7퍼센트로 감소했다.² 블랙 등(2013)은 전 세계 아동 사망 원인의 거의 절반을 영양 부족으로 추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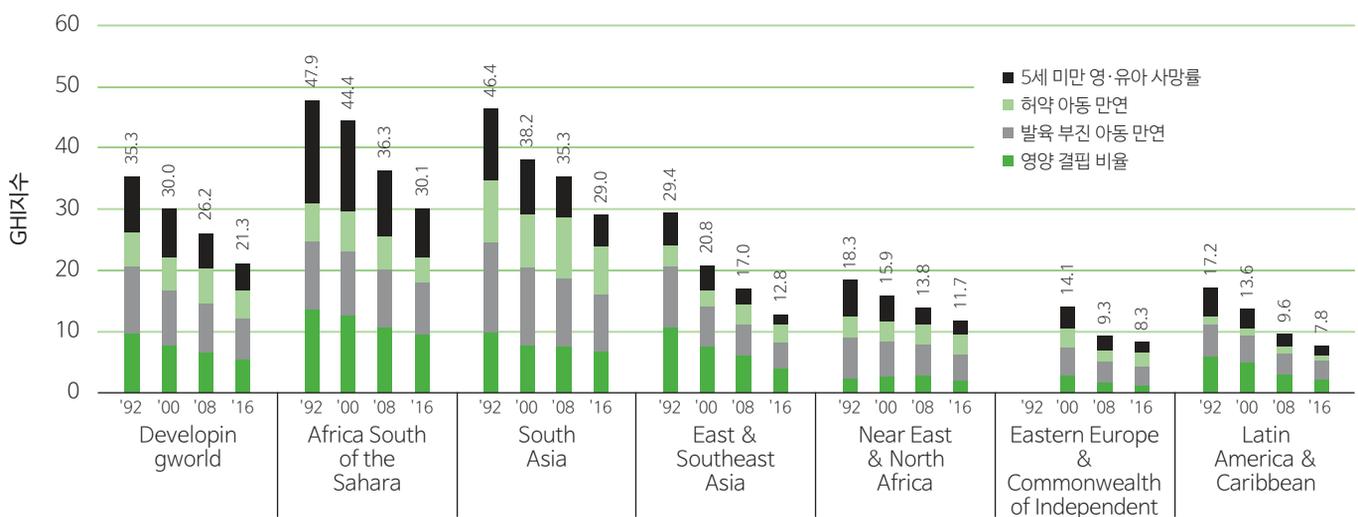
주요 지역 비교

개발도상국의 주요 지역을 보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과 남아시아가 각각 30.1점, 29.0점으로 2016 GHI가 가장 높다(Figure 2.1). 두 기아 지수는 심각한 수준이다. 두 지역의 GHI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현재 수준은 여전히 심각한 단계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보통 단계(10.0-19.9)보다는 위험한 단계(35.0-49.9)에 더 가깝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과 남아시아의 GHI 구성은 서로 다르다. 남아시아는 발육 부진 아동과 허약 아동으로 측정된 아동 영양 부족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보다 높다. 한편 인구 전체의 열량 결핍을 보여주는 영양 결핍 만연과 영·유아 사망률은 남아시아보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이 더 높다.

¹ 각 구성 지표의 세계와 지역 부문 총합은 부록 C에 수록한 지표 값을 사용해서 인구가중평균을 산출했다. 영양 결핍 자료가 부족한 국가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제공하는 잠정 추산을 이용해 세계와 지역 부문 총합만을 산출했지만 잠정 추산은 부록 C에 수록하지 않았다. 세계와 지역 별 기아지수는 각 지표의 총합과 부록 A에서 설명한 공식을 이용해서 산출했다.

² 이 문단에서 보는 추산은 세계기아지수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에 해당한다. 같은 지표라도 어느 나라를 포함하느냐에 따라 타 기관이 발표한 추산과 차이가 있다.

FIGURE 2.1 1992년, 2000년, 2008년, 2016년 구성 지표에 근거한 개발도상국과 지역별 세계기아지수



출처: 필진.

주: 자료 출처는 부록 B 참조. 1992년 동유럽과 독립국가연합의 지역 점수는 현재 국경과 일치하지 않은 국가가 많아서 산출하지 않았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근동과 북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동유럽과 독립국가연합의 세계기아지수는 7.8점과 12.8점 사이로 기아 수준이 낮거나 보통이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 격차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하고 광범위한 지역의 전체 점수를 근거로 특정 국가의 기아 수준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아이티는 세계기아지수가 가장 낮은 개발도상국인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해에 속하는 나라이지만 2016 세계기아지수는 36.9점으로 위험한 단계이다. 또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2016 세계기아지수는 12.8점이지만 인구 밀도가 높은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중국은 세계기아지수가 겨우 7.7점으로 낮다. 이 지역에서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기아지수는 19.9점으로 보통 단계와 심각한 단계의 경계에 매우 가깝다.³

절대 변화로 보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은 세계기아지수가 2000년에서 2016년까지 14.3점이 감소하여 가장 크게 발전했다. 남아시아,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역시 GHI 점수가 크게 줄었다. 2000년부터 각각 9.2점, 8.0점이 감소했다. 근동과 북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동유럽과 독립국가연합은 GHI 점수가 4.2점에서 5.8점까지 떨어졌다. 2000 세계기아지수와 비교한 백분율 변화로 보면 동유럽과 독립국가연합,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는 감소 범위가 39~43퍼센트 사이이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은 세계기아지수가 32퍼센트 감소했고 근동과 북아프리카, 남아시아는 각각 26퍼센트, 24퍼센트 감소했다.

희소식이라면 어떤 지역에서도 기아 감소가 정체되거나 막혔다는 증거를 볼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기아 수준이 높은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은 발전에 박차를 가해야만 한다. 2016년과 2030년 사이에도 두 지역의 기아 수준이 2000년 이후의 발전 속도로 감소한다면 세계기아지수는 여전히 대략 20~22점을 기록할 것이다. 그렇다면 심각한 단계의 최저 부근이거나 보통 단계와 심각한 단계의 경계 부근으로 2030년까지 기아를 근절하겠다는 목표는 요원하다.⁴

국가별 성과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 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하겠지만 독자 여러분도 이 보고서에 있는 사실을 숙지해서 각국의 내력을 잘 이해하길 바란다. 특히 부록 D에서는 알파벳 순으로 나열된 각국의 1992년, 2000년, 2008년, 2016년 세계기아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정보가 있는 표 2.1은 2016 세계기아지수를 바탕으로 기아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까지 각국의 순위를 보여준다. 부록 C는 국가 단위 GHI 점수의 기초가 되는 각국의 GHI 지표 값(영양 결핍 만연, 허약 아동, 발육 부진 아동, 영·유아 사망률)을 보여준다.

2000 세계기아지수에서 2016 세계기아지수까지 22개국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GHI 점수가 50퍼센트 이상 감소했다(Figure 2.2). 70개국은 상당히 많이 감소하여 감소율이 25.0퍼센트와 49.9퍼센트 사이에 이르고, 22개국은 감소율이 25.0퍼센트 미만이다. 이런 진척에도 불구하고 50개국은 여전히 기아 수준이 심각한 단계나 위험한 단계에 있다.

그림 2.3은 기아 수준이 심각한 단계나 위험한 단계인 국가들로 2016 세계기아지수와 2000년부터 이어진 GHI 백분율 감소를 보여준다. 표 우측 가장 아래에 있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차드는 분명히 주목해야 할 지역이다. 두 나라는 2000년 이래 비교적 낮은 기아 백분율 감소에 더해 올해 보고서에서 세계기아지수가 가장 높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4년 동안 지속된 내전으로 일어난 폭력과 대규모 난민 발생은 식량 생산에 큰 타격을 주었다(FAO 2016a). 차드 역시 내전이 길게 이어진 국가로 최근 난민 유입과 심각한 기후변화를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식량 안보에 위협을 받았다(FAO 2016b). 두 나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전 세계적으로 기아가 줄어든 발전은 주목할 만하지만 폭력적 대립, 방만한 통치, 농업에 악영향을 주는 기후변화에 의해 지구는 계속 기아로 몸살을 앓고 있어 변혁적이고 새로운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

나미비아와 스리랑카는 2000년부터 세계기아지수 백분율 감소가 두드러지게 가장 낮은 두 나라이다. 스리랑카의 경우 세계기아지수 지표 값을 살펴보면 영양 결핍 만연, 발육 부진 아동, 영·유아 사망률은 꽤 감소한 반면 허약 아동은 증가하여 이 보고서에서 셋째로 높은 수준이다(부록 C). 스리랑카에서 아동 영양 부족 원인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연구 자료에 의하면 불충분한 음식 섭취와 충분한 영양분 흡수를 막는 질병으로 인해 복합적인 미량영양소가 부족해서이다(Hettiarachchi and Liyanage 2010, Hettiarachchi and Liyanage 2012, Jayatissa et al. 2014). 나미비아의 경우 2000년 이후 발육 부진 아동, 허약 아동, 영·유아 사망률은 감소했지만 영양 결핍 만연은 증가하여 전체 점수가 낮아졌다. 나미비아는 강우가 불규칙하여 가뭄과 홍수가 빈번하고 지난 이삼 년 동안 가뭄어 곡물과 가축 생산이 하락했다. 또한 나미비아를 비롯한 인근 국가에 흉년이 들어서 식품 가격이 상승했다(WFP 2016b, FAO GIEWS 2016b).

Figure 2.3에서 가장 높이 위치한 르완다와 캄보디아, 미얀마는 심각한 단계나 위험한 단계에 해당하는 모든 국가에서 2000년부터 기아의 백분율 감소가 가장 크다. 세 나라 각국의 2016 세계기아지수는 2000년에 비해서 50퍼센트 이상 감소했다. 세 나라는 모두 수십 년 사이에 내전과 정

³ 지역별로 각국의 변화 추이를 인접국과 비교하고 싶다면 2016 세계기아지수 점수에 따른 국가 순위를 알 수 있는 부록 E를 참조하라.

⁴ 2016 세계기아지수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료를 바탕으로 했으며 각 지표의 최신 자료를 사용했다. 따라서 2016 세계기아지수는 2015년의 기아 수준을 보여준다. 2000 세계기아지수와 2016 세계기아지수 사이의 연간 백분율 변화 평균으로 2030년까지 향후 15년을 예상했다.

TABLE 2.1 1992년, 2000년, 2008년, 2016년 세계기아지수 순위

Rank ^a	Country	1992	2000	2008	2016	Rank ^a	Country	1992	2000	2008	2016
2016 세계기아지수 5점 미만 국가, 공동 1-16위	아르헨티나	5.8	5.3	<5	<5	71	캄보디아	45.3	44.7	26.6	21.7
	벨라루스	—	<5	<5	<5	72	네팔	43.1	36.8	29.2	21.9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	9.6	6.7	<5	72	케냐	38.5	37.6	29.6	21.9
	브라질	16.1	11.8	5.4	<5	72	인도네시아	35.8	25.3	28.6	21.9
	칠레	6.2	<5	<5	<5	75	미얀마	55.8	45.3	32.0	22.0
	코스타리카	7.6	6.3	5.0	<5	75	이라크	19.6	24.9	24.5	22.0
	크로아티아	—	6.2	<5	<5	77	모리타니	39.7	33.6	23.6	22.1
	쿠바	8.7	6.1	<5	<5	78	토고	45.2	38.5	28.2	22.4
	에스토니아	—	5.3	<5	<5	79	레소토	25.9	32.9	28.0	22.7
	쿠웨이트	26.0	<5	<5	<5	80	카메룬	40.4	40.3	30.5	22.9
	라트비아	—	6.6	<5	<5	81	보츠와나	32.4	33.0	30.9	23.0
	리투아니아	—	5.2	<5	<5	82	베냉	44.6	38.1	31.8	23.2
	몬테네그로	—	—	5.1	<5	83	스왓질란드	24.8	30.9	30.0	24.2
	사우디아라비아	11.8	10.4	9.1	<5	84	나이지리아	49.5	40.9	33.6	25.5
	터키	14.3	10.4	5.6	<5	84	스리랑카	31.8	27.0	24.4	25.5
	우크라이나	—	13.5	<5	<5	86	코트디부아르	31.8	31.4	34.1	25.7
17	슬로바키아공화국	—	7.7	6.0	5.3	87	우간다	41.3	39.4	31.2	26.4
18	튀니지	13.6	9.0	6.2	5.5	88	콩고	37.6	37.2	31.9	26.6
18	루마니아	9.0	8.6	5.9	5.5	89	말라위	57.6	45.3	31.8	26.9
20	우루과이	10.0	7.6	6.7	5.6	90	방글라데시	52.4	38.5	32.4	27.1
21	요르단	12.6	9.8	5.9	5.7	91	르완다	54.6	58.7	37.9	27.4
22	마케도니아	—	7.9	6.2	5.8	91	기니비사우	45.2	43.9	31.9	27.4
23	이란	17.5	13.7	8.8	6.7	93	말리	50.2	43.9	34.4	28.1
24	러시아	—	10.5	6.8	6.8	93	라오스	52.2	48.8	33.9	28.1
25	베네수엘라	14.9	15.3	8.7	7.0	93	기니	46.1	44.4	33.9	28.1
26	레바논	11.4	9.0	8.3	7.1	96	탄자니아	42.1	42.4	32.9	28.4
26	세르비아	—	—	7.8	7.1	97	인도	46.4	38.2	36.0	28.5
28	멕시코	14.6	10.8	8.4	7.2	98	북한	30.9	40.4	30.1	28.6
29	중국	26.4	15.9	11.5	7.7	99	짐바브웨	36.1	41.0	35.1	28.8
30	카자흐스탄	—	10.7	10.7	7.8	100	타지키스탄	—	40.3	32.4	30.0
31	자메이카	12.4	8.6	7.4	7.9	101	라이베리아	49.7	47.4	38.6	30.7
32	조지아	—	15.2	8.2	8.2	102	부르키나파소	47.7	48.4	37.1	31.0
33	불가리아	9.3	9.5	8.8	8.3	103	나미비아	35.8	32.5	29.6	31.4
34	피지	11.7	10.2	8.7	8.5	104	모잠비크	65.6	49.4	38.2	31.7
34	트리니다드토바고	13.9	12.3	10.5	8.5	105	지부티	61.1	48.5	35.9	32.7
34	콜롬비아	15.1	11.4	9.3	8.5	106	앙골라	65.9	57.8	40.5	32.8
37	페루	28.4	20.8	15.8	8.6	107	에티오피아	70.9	58.5	43.0	33.4
38	아르메니아	—	17.4	11.7	8.7	107	파키스탄	43.4	37.8	35.1	33.4
38	알제리	16.8	14.8	10.8	8.7	109	니제르	64.8	53.0	37.1	33.7
40	키르기스스탄	—	19.4	13.1	9.1	110	동티모르	—	—	46.9	34.3
41	몰도바	—	15.1	11.9	9.2	111	아프가니스탄	49.3	52.4	39.2	34.8
42	파나마	21.1	19.9	14.9	9.3	112	시에라리온	57.8	53.9	45.3	35.0
42	모로코	18.3	15.6	12.0	9.3	112	예멘	43.8	43.2	36.5	35.0
44	말레이시아	20.1	15.5	13.4	9.7	114	마다가스카르	44.6	44.2	37.1	35.4
45	야제르바이잔	—	27.2	15.7	9.8	115	아이티	51.6	42.8	43.4	36.9
46	수리남	17.5	16.5	11.7	10.1	116	잠비아	47.1	50.4	45.2	39.0
47	오만	21.1	14.2	10.7	10.4	117	차드	62.5	51.9	50.9	44.3
47	파라과이	17.1	14.2	11.7	10.4	118	중앙아프리카공화국	52.2	51.5	48.0	46.1
49	도미니카공화국	25.0	19.4	15.6	11.1						
50	엘살바도르	19.1	16.8	12.6	11.2						
51	남아프리카	18.5	18.7	16.3	11.8						
51	태국	26.1	18.3	11.9	11.8						
53	알바니아	20.4	21.1	16.9	11.9						
54	가봉	21.1	18.5	15.6	12.0						
55	투르크메니스탄	—	22.2	16.6	12.3						
56	우즈베키스탄	—	21.8	15.8	13.1						
57	모리셔스	17.5	16.2	14.8	13.2						
57	온두라스	25.8	20.3	16.8	13.2						
59	니카라과	36.1	25.6	17.9	13.3						
60	이집트	19.3	15.3	16.1	13.7						
61	몽고	34.0	33.0	20.5	13.8						
62	가나	42.7	29.9	22.7	13.9						
62	에콰도르	23.6	20.2	17.5	13.9						
64	가이아나	24.1	18.8	16.9	14.5						
64	베트남	41.5	30.2	22.1	14.5						
66	볼리비아	36.7	30.8	23.9	15.4						
67	세네갈	37.1	37.7	24.4	16.5						
68	필리핀	30.8	26.2	20.4	19.9						
69	과테말라	28.4	28.0	21.9	20.7						
70	감비아	33.5	27.9	24.5	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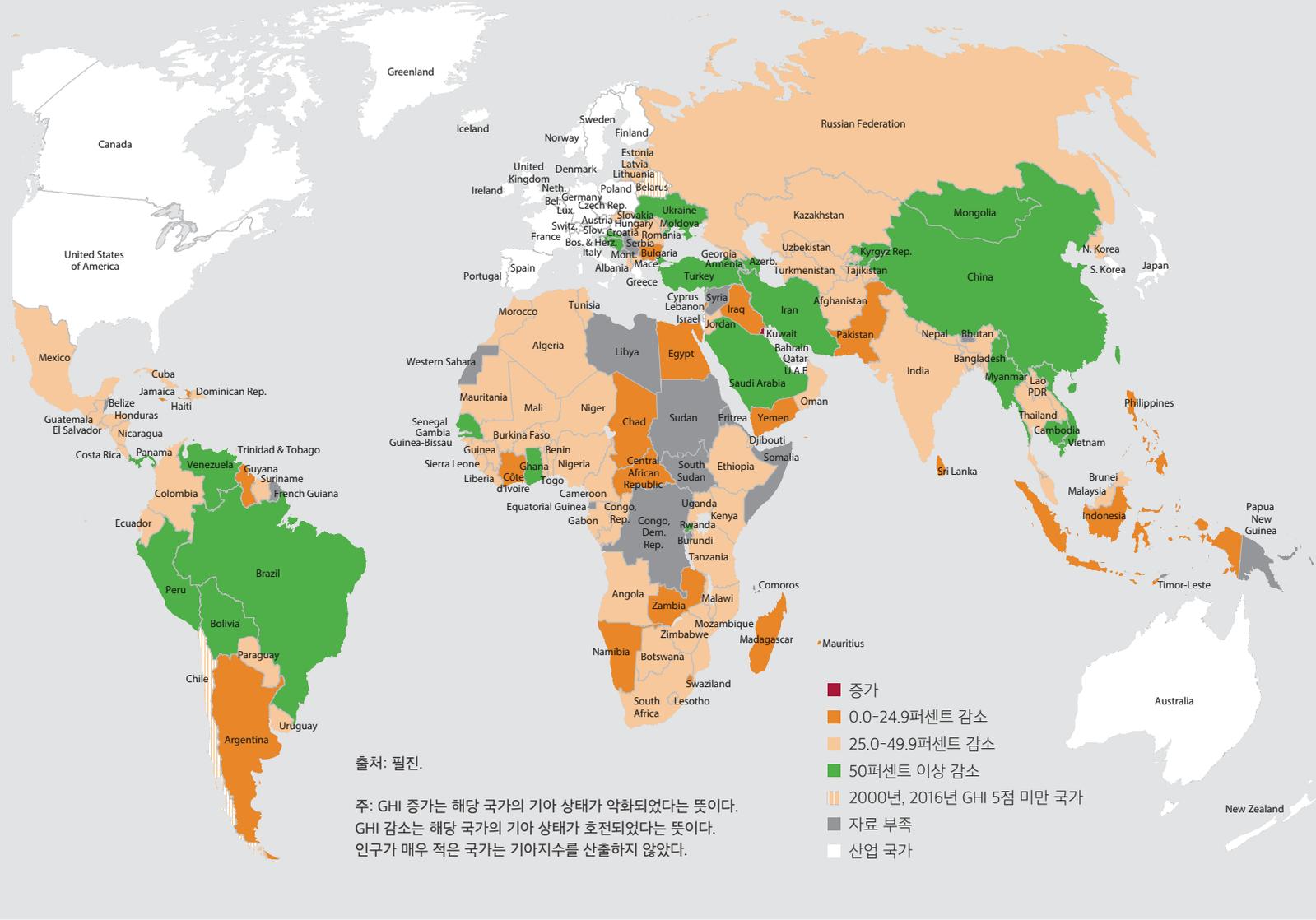
출처: 필진.

주: --자료 없음 또는 미공개. 1991년 전까지 구소련 소속 국가 같은 일부 나라는 특정 연도나 조회 기간에 현재 국경에 존재하지 않았다.

^a 2016 GHI 점수 순위. 2016 GHI 점수가 같은 국가는 순위가 같다(예를 들면 튀니지와 루마니아는 공동 18위이다). 바레인, 부탄, 부룬디, 코모로스, 콩고민주공화국, 에리트레아, 리비아, 파푸아뉴기니, 카타르,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시리아아랍공화국은 자료 부족으로 제외했다.

^b 2016 GHI 점수가 5점 미만인 16개국은 순위를 정하지 않고 공동 1-16위로 묶었다. 이들 간 점수 차이는 미미하다. 이전 GHI 보고서에서는 전혀 순위에 들지 못했던 국가들이다. 올해 보고서의 순위는 새로운 체계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전 보고서의 순위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FIGURE 2.2 **각국의 세계기아지수 감소 추이**
2000 GHI와 비교한 2016 GHI 백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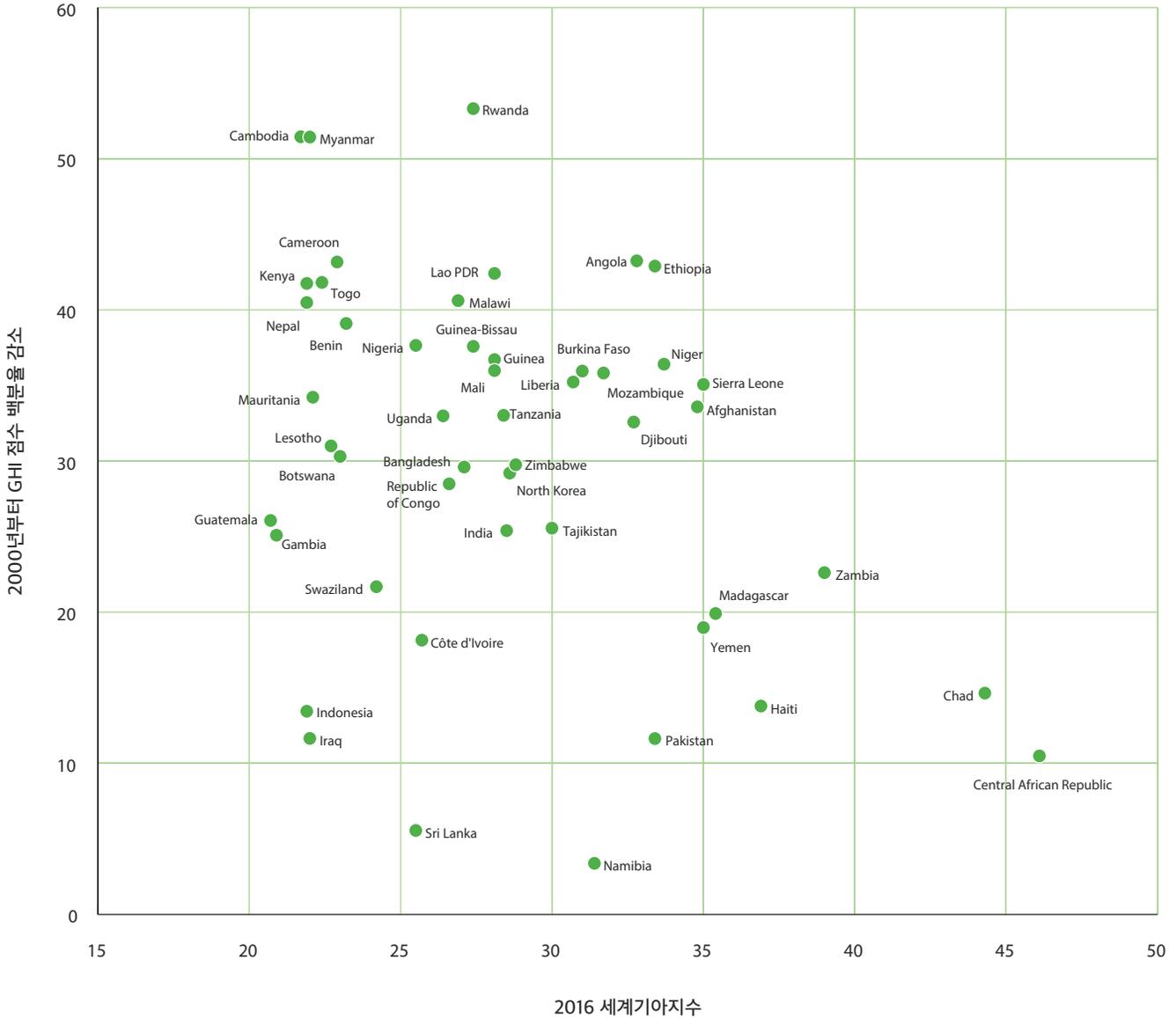


치 불안을 겪었으니 기아지수가 향상된 만큼 정치적 안정도 일부 되찾았을 것이다. 미얀마의 경우 2000년부터 영양 결핍 만연이 거의 75퍼센트가 감소한 덕분에 점수가 올라갔다. 아동의 영양 상태도 개선하여 상응하는 성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르완다에서 영·유아 사망률과 허약 아동은 각각 75퍼센트가량씩 가장 크게 줄었고 영양 결핍 만연은 거의 절반이 감소했으나 발육 부진은 겨우 20퍼센트 감소했다. 캄보디아의 영·유아 사망률은 73퍼센트가 감소하여 가장 크게 감소한 반면 발육 부진 아동은 34퍼센트가 감소하여 가장 적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발전을 이뤘다.

유독 쿠웨이트 한 나라만이 2000년과 2016년 사이에 세계기아지수가 증가했다. 그러나 지수의 절대값만 보면 증가량은 많지 않고 쿠웨이트의 기아 수준은 여전히 낮은 단계이다. 2016년 쿠웨이트 기아지수인 4.9점은 결핍 전쟁의 발발로 26점까지 증가했던 1992년 점수와 비교했을 때 극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점이 특히 중요하다.

7개국은 여전히 기아 수준이 위험한 단계이다. 대다수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마다가스카, 시에라리온, 잠비아이고 나머지는 타 지역에 있는 아이티와 예멘이다. 2016 세계기아

FIGURE 2.3 2000년부터 각국의 변화추이



출처: 필진.

주: 2016 GHI 점수가 20점 이상으로 기아 수준이 심각한 단계나 위험한 단계에 해당하는 국가들이다. 또한 GHI 점수를 산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국가들이다. 기아 수준이 비슷하지만 자료 부족으로 제외된 국가들이 있을 수 있다.

지수에 의하면 기아 수준이 극히 위험한 단계(GHI 50점 이상)에 해당하는 나라는 없지만 멀지 않은 2000년에 극히 위험한 단계에 해당하는 나라는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에티오피아, 니제르, 르완다, 시에라리온, 잠비아 9개국이었다. 예년처럼 영양 결핍 자료를 얻을 수 없고 허약 아동과 발육 부진 아동 자료도 입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세계기아지수를 산출하지 못한 국가가 많다. 그러나 기아 그리고/또는 영양 부족 상황을 주의 깊게 주시해야 하는 나라들이 많고(Box 2.1) 극히 위험한 단계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나라들도 있다.

세계기아지수 구성 지표로 보면 아이티,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영양 상태가 결핍한 사람의 비율이 인구의 47.7퍼센트와 53.4퍼센트 사이

로 가장 높다. 동티모르, 부룬디, 파푸아뉴기니는 5세 미만 아동의 약 50퍼센트나 그 이상이 발육이 부진하여 발육 부진 아동 만연이 가장 높다. 남수단, 지부티, 스리랑카는 5세 미만 아동의 21.4퍼센트와 23.8퍼센트 사이가 허약 아동으로 허약 아동 만연이 가장 높다. 소말리아, 차드, 앙골라는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이 13.7퍼센트와 15.7퍼센트 사이로 가장 높다.

국내 기아와 영양 부족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는 발전 과정에서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여러 변수 중에서 특히 소득, 젠더, 나이, 지리적 위치로 구분한 자료 사용을 중요하게 강조한다(UN 2015). 세계기아지수 연간 보고서에서는 국가, 지역, 세계 단위로 점수를 공개하지만 개별 GHI 지표를 국내나 지방 단위에서 조사하면 절대 값과 시간에 따른 변화에서 국내 격차가 드러난다. 국내 격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이 보고서의 범위를 넘는 일이고 자료의 한계 때문에 불가능하기도 하다. 보고서에 수록한 국가들은 발육 부진 아동, 허약 아동, 영·유아 사망률을 알 수 있는 국내 자료를 부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영양 결핍을 산출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여기서는 국내에 지리적 격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국내 차원에서 기아와 영양 부족의 원인과 실태를 더 깊이 조사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국내 격차 사례를 제시한다.

세계기아지수 지표의 불균등함은 낮은 단계에서 극히 위험한 단계까지 세계기아지수단계표의 모든 단계의 나라마다 존재한다.⁵ 국가 단위에서 기아와 영양 부족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국내 자료를 살펴보면 낙후된 지방을 찾아낼 수 있다. 예를 들면 멕시코는 2016 세계기아지수가 7.2점으로 낮고 최신 자료에 의하면 전체 발육 부진 수준은 13.6퍼센트이다. 그러나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 주의 어린이는 거의 3분의 1(31.4퍼센트)이 발육 부진이다(WHO 2013). 치아파스 주의 아동 영양 부족 실태는 잘 정리되었고(Stahl 2014, García-Parra et al, 2016) 마르티네스로드리게스 등(Martínez-Rodríguez et al, 2014)은 치아파스 주의 식량 불안 수준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구티아레스 지메네스 등(Gutiérrez-Jiménez et al, 2013)은 치아파스 주 아동 영양실조와 장내 기생충의 관계를 밝혔다. 후아레스와 곤잘레스(Juárez and Gonzalez, 2010)는 멕시코 치아파스와 다른 주들의 가정에 적절한 위생 설비가 부족해서 영양분의 생체이용률이 낮을 것이라고 말한다. 곧 감염과 질병 탓에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와 비슷하게 요르단도 2016 세계기아지수가 5.7점으로 낮고 2012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발육부진율이 7.8퍼센트이다(WHO 2014). 그러나 요르단 남부 마안 주의 5세 미만 영·유아는 거의 5분의 1(19.0퍼센트)이 발육 부진일 것으로 추정한다(WHO 2014). 사실 크라프트와 옐코갈

리(Krafft and El-Kogali, 2014)는 요르단이 중동과 북아프리카 12개국 중 발육 부진 아동의 비율이 가장 낮지만 그 비율의 격차가 가장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세계기아지수단계표의 다른 쪽 끝으로 가서 위험한 단계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국내 자료를 검토하면 위기에 처한 지방이 드러나고 기아와 영양 부족 수준이 매우 높다. 2016 세계기아지수가 39.0점으로 위험한 단계에 해당하는 잠비아는 지방별로 세계기아지수 지표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2013-2014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은 7.5퍼센트였지만 코퍼벨트 주는 6.3퍼센트, 이스턴 주는 11.5퍼센트에 이른다. 넓게 국가 단위로 보면 이 보고서 자료로 2015년 영·유아 사망률이 10퍼센트 이상인 나라는 131개국에서 8개국뿐이었다. 잠비아의 국가 발육부진율은 40.1퍼센트이지만 노던 주는 48.5퍼센트로 가장 높고 코퍼벨트, 루사카, 웨스턴 주는 각각 36퍼센트로 가장 낮다. 허약률로 보면 잠비아 평균은 6퍼센트이지만 루아풀라는 국가 평균의 두 배 이상인 13.0퍼센트이다(잠비아, MOH, CSO, ICF International 2014).

세계기아지수단계표에서 역시 위험한 단계에 해당하는 시에라리온은 발육 부진 격차가 훨씬 더 크다. 2013년 자료에 의하면 코노 지역은 발육부진율이 51.6퍼센트로 가장 높은 반면 봄발리 지역은 발육부진율이 28.2퍼센트이다. 한편 봄발리는 국내에서 아동 허약률이 25.5퍼센트로 가장 높은 반면 코노는 4.3퍼센트로 두 번째로 가장 낮다(SSL and ICF International 2014). 그들의 특별한 결핍을 해결하려면 각 지방이 직면한 구체적인 상황과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캄보디아는 기아지수가 2000년 44.7점에서 2016년 21.7점으로 51퍼센트가 감소하여 기아가 심각한 단계나 위험한 단계로 분류된 나라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기아 감소를 보였다. 2000년과 2014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발육부진율은 49.2퍼센트에서 32.4퍼센트로 떨어져 34퍼센트 감소했다. 그러나 일부 지방은 타 지방에 비해 더 인상적인 발육부진율 감소를 보였다. 예를 들면 칸달 주는 같은 기간에 발육부진율이 55.2퍼센트에서 28.1퍼센트로 떨어져 거의 50퍼센트 감소했다. 그러나 캄퐁스페우 주는 발육부진율이 2000년 49.5퍼센트와 2014년 40.5퍼센트로 겨우 18퍼센트 감소했다(캄보디아 NIS, DGH, ICF International 2015, WHO 2012). 이와 비슷하게 같은 조사에서 영·유아 사망률을 비교하면 캄보디아 국내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은 같은 기간에 12.4퍼센트에서 3.5퍼센트까지 상당히 많이 떨어져 72퍼센트가 감소했다.⁶ 몇몇 주는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 수준이 70퍼센트 이상 떨어진 반면 캄퐁툼 주는 9.9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떨어져 겨우 39퍼센트 감소했다. 캄퐁툼 주는 캄보디아에서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캄보디아, NIS, DGH,

⁵ 2016 GHI 점수가 극히 위험한 단계에 해당하는 국가는 없지만 자료 부족으로 점수를 산출할 수 없는 국가 중에 자료가 있었으면 극히 위험한 단계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국가들이 있었을 것이다.

BOX 2.1 자료는 부족하지만 주목해야 할 국가

이번 보고서에서 영양 결핍 만연 자료를 얻을 수 없고, 허약 아동과 발육 부진 아동에 관한 자료나 추정치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2016 세계기아지수를 산출하지 못한 나라는 13개국이다. GHI 점수가 없으므로 이런 국가들의 상황을 최대한 파악하려면 입수 가능한 식량 안보와 영양 자료를 분석해야 한다. 특히 일부 국가는 아동 영양 부족과 영·유아 사망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들이다. 더욱이 13개국의 최신 자료를 지체 없이 입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래에 있는 표는 세계기아지수 점수가 없는 국가에서 얻을 수 있는 GHI 지표 자료와 추정치를 보여준다. 이 자료들과 더불어 기아와 영양실조 전문 국제기관에서 제공한 유효한 정보,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우리는 주의 깊게 주목해야 할 국가들을 찾아냈다. 어떤 국가들인지 입수한 정보를 요약해서 아래에 소개한다.

국가 개요

부룬디: 2010-2011년 조사에 따르면 부룬디는 아동 발육부진율이 57.5퍼센트로 2011-2015년 자료와 추정치를 구한 모든 국가에서 가장 높다. 적합한 자료 활용이 가능해서 온전한 GHI 점수를 산출한 마지막 해였던 2014 세계기아지수 보고서에서 부룬디는 기아지수를 산출한 모든 국가 가운데 기아지수가 가장 높아 극히 위험한 단계에 해당했다(von Grebmer et al. 2014). 부룬디는 1993년과 2005년 사이에 내전에 휩쓸렸고 그로 인해 끝내 전체 인구의 식량 안보와 영양 상황이 악화되고 농업과 생태가 타격을 입고 경제 불황이 닥쳤다(Verwimp 2012, WFPUSA 2015). 부룬디의 불안 수준은 2016년 초 증가해서 유니세프는 “큰 영양 위기”가 닥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시했다(UNICEF 2016b).

코모로스: 코모로스는 발육 부진 아동이 32퍼센트, 허약 아동이 11퍼센트, 5세 생일을 맞기 전에 사망하는 아동이 7퍼센트가 넘는다.

코모로스 기아지수를 마지막으로 산출한 것은 2014 세계기아지수 보고서이고, 그 당시 코모로스는 GHI 점수를 산출한 120개국 가운데 기아 수준이 넷째로 높았다. 1975년 프랑스에서 독립한 이래 코모로스는 쿠데타가 적어도 20회 발생했다(CSIS 2008). 세계은행 보고서에는 최근 정치 안정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미 가난하고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코모로스는 악화 일로의 경제 불황으로 도탄에 빠져 있다(World Bank 2016).

콩고 민주 공화국(DRC): 2013-2014년 조사에 따르면 DRC의 발육 부진 아동 비율은 43퍼센트로 매우 높고 44퍼센트로 조사된 2001년 이래 사실상 변동이 없다(UNICEF/WHO/World Bank 2016). 영·유아 사망률은 9.8퍼센트로 이번 보고서의 131개국 가운데 영·유아 사망률이 가장 높은 상위 10개국에 해당한다. 더욱이 허약 아동은 8퍼센트에 이른다. 미국 국제개발청(USAID)에 의하면 “반복하는 분쟁, 그에 따른 국내 이재민, 개선된 영농 지식과 기술 부재, 곡물과 가축 질병 만연, 부실한 인프라, 젠더 불평등, 출산율 증가를 비롯한 여러 요인이 DRC의 식량 안보를 위협한다”(USAID 2016).

에리트레아: 에리트레아의 자료가 완전했던 마지막 세계기아지수 보고서는 2014년이였다. 그 당시 에리트레아는 점수를 산출한 전 세계 국가 가운데 GHI 점수가 둘째로 가장 높았다(von Grebmer et al. 2014). 가장 최근에 개선한 발육 부진 아동과 허약 아동 비율은 각각 49.1퍼센트와 12.5퍼센트로 매우 높다. 설상가상으로 위성 사진에 의하면 2015-2016년에 심각한 가뭄이 들었고 녹지가 감소했다. 따라서 에리트레아는 자료가 부족하지만 기아와 영양 부족이 심각하고 계속 주목해야 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

리비아: 리비아의 아동 발육 부진과 허약 수준은 각각 23.3퍼센트와 6.4퍼센트로 추정한다.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은 1.3퍼센트로 낮다. 최신 자료가 시급히 필요하다. 특히 리비아는 2011년에 내전이 일

기존 GHI 지표 값과 관심 유무

(continued)

국가	발육 부진 아동 5세 미만 발육 부진 아동 만연 2011-2015(%)	허약 아동 5세 미만 허약 아동 만연 2011-2015(%)	영·유아 사망률 5세 미만 사망률 2015(%)	관심 유무?
Bahrain	9.0*	5.2*	0.6	NO
Bhutan	26.9*	4.4*	3.3	NO
Burundi	57.5	6.1	8.2	YES
Comoros	32.1	11.1	7.4	YES
Congo, Dem. Rep.	42.6	8.1	9.8	YES
Eritrea	49.1*	12.5*	4.7	YES
Libya	23.3*	6.4*	1.3	YES
Papua New Guinea	49.5	14.3	5.7	YES
Qatar	1.0*	2.0*	0.8	NO
Somalia	—	—	13.7	YES
South Sudan	33.7*	23.8*	9.3	YES
Sudan	38.2	16.3	7.0	YES
Syrian Arab Republic	—	—	1.3	YES

출처: 필진.

주: *IFPRI 추정, — = 자료 없음, 표에 있는 국가들의 영양 결핍 개선, 곧 GHI 점수 없음.

어나고 2014년에 두 번째 내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국제 사회는 최신 자료가 있어야 리비아 국민이 직면한 식량 안보의 난항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 충돌과 불안으로 리비아의 농업 생산은 하락했고 식량 분배 인프라가 붕괴했다(FAO GIEWS 2016a). 리비아 총인구 641만 명 가운데 식량 불안에 직면한 인구는 128만 명으로 추산한다(UN OCHA 2015).¹ 리비아의 식량 불안은 2011년과 2014년 내전 이전에는 아주 낮았지만 정치와 경제 제도의 혼란을 틈타 새롭게 상승했고 나라가 안정을 찾지 못하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WFP 2016a).

파푸아뉴기니: 파푸아뉴기니는 5세 미만 발육 부진 아동이 49.5퍼센트로 조회 기간 2011-2015년 사이에 발육 부진 자료와 추정치가 있는 129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다. 아동 허약 수준 역시 14.3퍼센트로 아주 높아서 주목해야 할 나라이다. 사회 불평등, 빈곤, 주요 곡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때문에 인구 대다수가 영양이 풍부한 다양한 식품을 구하지 못한다(Hou 2016). 더욱이 2015-2016년 엘니노가 일으킨 가뭄과 서리로 식량 생산에 악영향을 받았고 전체 국민 3분의 1의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FAO 2015).

소말리아: 소말리아에서 세계기아지수 지표로 쓸 수 있는 유일한 자료는 영·유아 사망률이다. 소말리아 영·유아 사망률은 13.7퍼센트로 이번 보고서의 영·유아 사망률 중 셋째로 높다. 소말리아 유니세프와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아동 영양 부족이 만연해 있다(UNICEF 2015, ICRC 2015). 2011년 기준으로 25만 명이 사망했다(WFP 2015). 한편 2015년 시작된 엘니노 관련 가뭄으로 소말리아는 또다시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 식량농업기구가 운영하는 식량 안보영양분석반(FNSAU)과 기근조기경보네트워크(FEWS NET)는 2016년 2월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날마다 밥을 굶는 사람들을 포함해 식량 불안이 심한 사람들의 비율이 위험할 정도로 높다고 지적했다(UN 2016a).

남수단: 2010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5세 미만 아동 31퍼센트가 발육 부진이었고 23퍼센트가 허약했다. 또한 최신 자료를 보면 이런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정황을 보자면 남수단의 허약 아동 추정치는 조회 기간 2011-2015년 사이에 허약 아동 자료와 추산이 있는 129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 2015년 영·유아 사망률 역시 9.3퍼센트로 높다. 2013년 반대 세력 간의 권력 싸움으로 발생한 폭력적 대립은 2016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6년 4월 현재 약 1,230만 남수단 인구 가운데 430만 명이 직면한 식량 불안은 위험한 수준이거나 그 이상으로 기초 식량을 구하기도 매우 어렵다(UN OCHA 2016b,

FAO/UNICEF/WFP 2016). 남수단 일부 지역은 가구들이 '위급'하고 '재앙적' 수준의 식량 불안에 직면해 있다(FEWS NET 2016).

수단: 2014년 조사 자료를 보면 수단의 아동 영양 부족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5세 미만 아동의 발육 부진과 허약 수준은 각각 38.2퍼센트와 16.3퍼센트이다. 수단의 기아와 영양 부족 문제는 빈곤이 만연한 것, 2015-2016년 엘니노로 인한 가뭄을 비롯한 농업과 생태 환경 파괴, 폭력적 충돌과 정치 불안과 관련이 있다. 수단 국내 갈등으로 발생한 남수단 난민 유입과 대규모 국내 이재민으로 기아와 영양 부족은 악화되었다. 식량 불안 피해가 가장 극심한 지역은 분쟁의 영향을 받은 블루나일, 다르푸르, 웨스트코르도판, 사우스코르도판 주이다(FEWS NET 2015, UN OCHA 2016a).

시리아아랍공화국: 현재 내전이 6년째 접어든 시리아의 황폐한 상황을 고려하면 최신 자료와 통계는 특히 제한적이다. 올해 보고서에 필요한 영양 결핍 만연, 발육 부진 아동, 허약 아동에 대한 최신 자료와 추산은 입수할 수 없었다. 입수할 수 있는 최신 자료는 영·유아 사망률이다. 영·유아 사망률은 1.5퍼센트로 높지 않지만 분쟁이 발발하여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는 자료를 수집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Save the Children 2014) 신뢰할 만한 자료는 아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올라온 보고서에 따르면 내전으로 찢긴 시리아에서 식량이 부족한 인구는 상당히 많다. 세계식량계획(WFP)은 시리아 식량 생산이 내전 이전 수준에 비해 40퍼센트 감소했다고 발표했다(WFP 2016c). 2016년 초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은 기근을 전쟁 무기로 이용하는 것을 비롯해 국제 인권을 유린한 내전의 모든 주체들을 비난했다(UN 2016b).

¹ 2015 UN OCHA 보고서에서 식량 불안에 직면한 사람 수는 자원 부족 탓에 식량을 구할 수 없다고 보고한 가구 비율에 근거했다.

ICF International 2015, 캄보디아 NIS, DGH, ORC Macro 2001). 지메네스-소토, 더럼, 하지(Jimenez-Soto, Durham, Hodge, 2014)는 2000년, 2005년, 2010년 캄보디아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을 검토하고 영·유아 사망률의 지역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상승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결론

올해 세계기아지수 결과를 보면 개발도상국은 기아와 영양 부족과 싸워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동시에 이 보고서는 2030년까지 기아를 근절하겠다는 목표를 이루는 길에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취약한 지역 여러 곳과 국내 차원을 포함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자료를 발견했다. 세계 여러 나라에 비해 낙후된 지역, 이웃 나라에 비해 뒤쳐진 국가, 자료가 불충분해서 위기에 처한 나라, 국내에서 심한 불이익을 받는 계층 등 결핍이 있는 영역을 찾아내 적절히 지원하여 반드시 2030년까지 기아 근절을 이루어야 한다.

⁶ DHS가 추정한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은 GHI 산출에 이용한 유엔 영·유아사망률추정합동기구(UN IGME)가 추정한 것과 차이가 있다. 유엔 IGME는 2000년과 2014년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을 각각 10.8퍼센트와 3.1퍼센트라고 보고한다. 그러나 DHS 추정 값으로 계산하면 유엔 IGME 추정 값으로 계산하면 2000년과 2014년 사이의 백분율 변화는 각각 71.8퍼센트와 71.3퍼센트로 거의 같다.

03

모잠비크 보바나미에서 학교 텃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채소 재배를 배우는 열세 살 소녀 엘마와 친구들.

세상의 변혁: 어떻게 지속가능발전목표로 기아를 근절할 것인가

David Nabarro

저는 시절 네팔과 인도, 방글라데시에서 의료 활동을 시작했던 나
리는 몹시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기아와 영양실
조의 힘을 직접 목격했다. 기아와 영양실조는 사람들의 건강을 서서히 무
너뜨렸다. 종종 아이가 피할 수도 있었을 죽음을 맞게 되어 불필요한 슬
픔으로 이어지기도 했고, 출산하던 산모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기도 했다.
내가 진료했던 마을들은 전대의 영양 부족을 후대가 계속 이어갔고, 허약
한 개인과 사회는 잠재력을 온전히 꽃피우지 못했다. 이런 영양 부족 상태
는 왜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일까?

그런 마을에서 일했던 우리는 여자들의 이야기와 가족들의 이야기에 귀
를 기울이면서 그들이 직면하는 어려운 일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으며,
이는 영양실조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영유아를 제대로
먹이는 일은 시간이 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는 사치스러운 일이었다.
모유 수유는 보호받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공간이 없는 경우가 허
다했다. 아이를 잘 먹이려면 영양가 있는 식품을 구해야 하는데 병에 걸려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했다. 사람들은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 식량, 보건,
위생, 생활의 어려움이 전부 복잡하게 뒤엉킨 곳에서 살고 있었다. 이런 문
제는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했다. 이는 개인을 중시하는 새로운 방식이었다.

2015년은 국제 개발이 새로운 차원으로 큰 변화를 겪은 해였다. 유엔 193
개 회원국은 전례 없이 포괄적이고 투명한 공개 절차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와 관련
목표 169개를 포함하는 의제이다.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는 샌다이재해
위험감감경령, 아디스아바바실행협정, 파리기후협약과 더불어 사람, 지구,
번영, 협력, 평화를 위한 진정한 변화의 계획을 담고 있다.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는 앞으로 14년에 걸친 세상을 위한 정치 선언이
다.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는 모든 사람, 국가, 제도, 조직, 기업의 목적
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곧 가난과 기아를 근절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먼저 돕고 인권을 우선하고 불의와 싸우고 여권을 신장하고 복원력을 증진
하고 악영향을 끼치는 기후변화에 대처하여 인류와 지구가 변형하는 세상
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는 가난, 기아, 역병, 불평
등, 환경 파괴, 기후변화, 강제 이주, 폭력, 과격주의 같은 얽히고설킨 기저
원인을 지적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를 이룰 책임은 선진국과 개발도
상국 모두에게 있다. 이는 유엔의 3대 축, 곧 평화와 안보, 개발, 인권을 전
부 아우르고 사회와 경제, 환경을 통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청사진이다.

더구나 2015년에 맺은 여러 협약을 보면 대립이 극심하고 분열이 현저한
시기에도 포괄적인 다국간공동정책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포괄성

은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를 완성한 절차의 핵심이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는 모든 회원국이 협상을 거쳐 합의에 이르렀다. 더불어 민간
사회, 기업,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참여했다. 전 세계
에서 700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접 참여한 역사상 가장 공개적이고 참
여도가 높은 다자간 절차였다. 폭넓은 이해관계를 대표한 그들은 각자 독
특한 관점을 제시하여 인류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의 다른 점은 몇 가지 기본 원리에서 찾을 수 있
다. 지속가능발전의제는 '보편적'이다. 발전 수준과 정치적, 사회경제적 위
상을 떠나서 모든 나라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개발도상국에 적
용하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와는 다르다.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는
모든 국가를 개발도상국으로 본다. 모든 국가가 자국의 정책과 시행이 국
경 밖까지 널리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의 세계
에 기여하도록 운영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속가능발전의제는 '변화'를 추구한다. 지구를 보호하면서 빈곤과 기아
를 단번에 근절하자고 제안하기 때문이다. 인권과 사회 정의가 핵심을 이
룬 지속가능발전의제는 아무도 저버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사람을 중심에
둔다. 또한 접근이나 파악이 어렵거나 개발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외된 사람들의 필요를 구체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2015 세계기아지수(GHI) 보고서는 폭력적 대립의 피해자, 곧 드러난 피
해자와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 모두의 필요와 권리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
장하여 지속적인 무장 충돌과 그것이 기아 근절에 미치는 악영향, 이재민,
소외된 사람들을 날카롭게 조명했다.

우리는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를 뒷받침하는 권리를 실현하여 개인, 사
회, 국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의제는 '통합적'이고 분할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격리, 폐쇄
된 곳이 아니라 긴밀하게 교류하는 사회와 생태계에서 살아간다. 따라서
우리는 조직과 운영 방식을 혁명적으로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지속가능발
전목표 한두 개만 따로 이루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통합적인 방법으로 모
든 목표를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회원국들이 내다본 변화를 이룰 수 없다.

주: 3장의 내용은 필자의 의견으로 국제식량정책연구소, 세계기아원조, 컨선월드와이드의 입장과 상
이할 수 있다.

야심 찬 목표에서 실행까지: 지속가능발전의제 이행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는 모두 참여해서 전부 이행해야 세계와 인류에 의미가 있다. 세계인이 숙고하고 국가 지도자들이 합의한 야심 찬 목표는 포부에 걸맞은 투자로 충분히 뒷받침해야 한다. 곧 '수십억달러에서 수조 달러로(From Billions to Trillions)'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자원의 증대가 필요하다. 또한 이 야심찬 목표가 곳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역 사회부터 육성해야 한다. 회원국은 의제를 주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의제를 국내 상황에 접목하고 의제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사회 전체가 실행을 지지하도록 역량을 길러야 한다. 지속가능발전의제와 궤를 같이 하고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야심 찬 국가 발전 계획을 가동하고 전 부문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이런 일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2016년 7월에 열린 지속가능발전 고위정치포럼에서 22개국은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시행 경과를 보고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를 달성하는 일은 동전의 양면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배기가스를 줄이고 기후의 회복력을 높이는 행동은 바로 후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세계의 기반을 닦는 길이다. 2030 의제는 반드시 국가 계획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할 때 새로운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근시안적인 정치적 이익을 멀리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2030 의제가 담고 있는 새로운 정치적 합의 방식이다. 모든 나라의 각계각층은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때때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지만 개인과 조직은 외부와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자금을 공유하거나 나누어야 한다. 국가의 내각을 새롭게 정비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용기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면 성공이 뒤따를 것이다.

각국이 새로운 의제에 맞추어 일하면 유엔이 일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회원국은 2030 의제로 인해 유엔에서 통합적이고 조직적인 정책 지원을 해줄 것을 부쩍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유엔은 국가와 사회에 긴밀한 맞춤형 지원을 펼쳐야 하고, 평화와 안보, 인권, 개발에 대한 유엔 정책에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인도주의 활동가들은 지속가능발전의제가 특히 인권과 복원, 복지 사각 지대 해소에 중점을 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유엔은 부문 간, 분야 간 접점에서 일하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이는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가 요구하는 역량이다.

시민, 지역사회, 지방정부, 중앙정부, 모든 시민사회단체, 모든 기업은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를 자기 일로 여겨야 한다. 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각계각층에 강력하고 주도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2030 의제가 국가 전략과 예산에 주요 목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세계기아지수 이니셔티브는 그 같은 노력을 지원하고 기아 문제를 토론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연구자와 비정부기구(NGOs)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유효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기아 실태를 산출한다. 미디어는 세계기아지수 보고서를 검토하고 개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기아의 힘에 주목하여 여론과 정치적 논의를 추진할 수 있다.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와 기아

회원국은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에서 기아와 영양실조 근절을 포함한 포괄적, 통합적, 보편적 변화를 다짐했다. 이런 포부는 지속가능발전목표 2(SDG2)가 담고 있다. 식량 안보, 영양 개선, 지속 가능한 농업을 달성하는 목표는 사회정의에 기여하고 농촌 빈곤을 근절하고 사람들의 보건과 복지를 증진하는 일과 종합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새천년개발목표는 129개국 중 73개국에서 만성 기아에 허덕이는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했고 마침내 2억 1,000만 명이 만성 기아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충분한 식량을 먹지 못해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8억 명에 이른다.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는 지금까지 소외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지속가능발전의제는 '기아 근절'이라는 목표를 통해 2030년까지 인류의 기아와 영양실조를 근절할 것이다.

기아 근절은 야심만만한 목표이지만 2030년 지속가능발전의제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기아로 치르는 대가는 죽음뿐 아니라 개인이 실현하지 못한 잠재력도 있다. 기아는 사회, 국가, 지역에서 사회 발전 목표 달성을 가로막고 경제 발전을 방해한다. 우리가 먹는 식량을 재배하고 가공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방식은 인류, 지구, 발전, 평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따라서 기아와 영양실조를 신속히 근절하지 못하면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아울러 기아와 영양 부족만 해결해서는 기아와 영양 부족을 영영 근절할 수 없다. 농촌 빈곤을 근절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지 못하면, 농업(소작농, 어부, 축산업자, 산림 채집자, 전통적이며 토착 사회 포함)과 식량 체계를 포괄적이고 회복력이 있고 지속 가능한 것으로 바꾸지 못하면, 생태계와 자연 자원을 보존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아를 근절할 수 없다. 또한 가난과 기아를 유지하는 구조적인 요인에도 대응해야 한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식량 안보 보호와 기아 근절과 기후변화의 영향 사이의 관계를 강조한다. 빈곤한 국가들과 모든 국가들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가장 먼저 받을 뿐 아니라 고통도 가장 크게 받는다. 농촌 인구, 특히 여자와 아이들, 소규모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과 노동

자들이 받는 피해는 극심하다. 2030 의제를 실행하고 기아 근절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기후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농업과 식량 체계는 새롭게 인간을 중심에 두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적응과 완화를 통해 기후변화 문제를 농업으로 해결하는 혁신적인 방법들은 소규모 경작 농부들의 생산과 수입을 늘리는 동시에 국가가 기후 협약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기아와 영양실조에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은 반복적인 자연 재해나 대립으로 장기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 거의 1억 3,000만 명이 장기적인 위기에 처한 국가에서 굶주리고 있으므로 그들의 기아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도 저버리지 않고' 기아를 근절하겠다는 약속은 물거품이 된다.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는 가장 취약한 계층의 요구를 가장 먼저 해결한다. 선다재해위험경감강령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주로 기후변화에 의해 악화되고 빈도와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는 재난으로 심각하게 지연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개인(특히 여성)과 사회가 회복력을 높이면 충격과 압박을 받더라도 장기적인 발전과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굶주리고 영양이 부족한 사람은 회복력을 잃게 마련이다.

혁신적 접근

전 유엔 사무총장 다그 함마르셸드는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에 있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변화의 속성은 야심만만하지만 성취 가능하다. 그러나 실행가들이 혼자서 일해서는 목표를 이룰 수 없다. 의제로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사회 전반이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역량을 발휘해 인류의 가난과 기아를 영원히 근절하겠다는 공동 목표 아래 수많은 실행가를 결집하는 수밖에 없다. 가장 접근하기 힘든 인구와 가장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는 어려운 난관으로 남아 있지만 모든 이해관계자는 다짐한 것을 실행해야 한다. 유엔 시스템, 정부, 시민사회, 기업 사회는 전통과 관례의 경계를 넘어서 새롭게 협력하고 혁신적인 길을 열어야 한다.

각계각층의 실행가들을 결집하려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서 개인의 삶을 바꾸는 2030 의제의 잠재력을 잘 전달하고 정부가 하려는 일을 모든 시민이 이해하여 지도자들이 책임을 이행하도록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 개인은 의제의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

식량 안보, 영양, 지속 가능한 농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를 달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의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지난 십 년 동안 열량 결핍과 영양 부족, 비만을 아우르는 모든 형태의 기아와 영양실조를 근절하고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이 있고 포괄적인 식량 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플랫폼과 협력, 운동이 발흥했다. 우리는

협력, 영향력 결집, 다수이해관계자 관리체제 같은 실험적인 활동을 통해 2030 의제를 폭넓게 실행하는 데 필요한 교훈을 배운다.

기아근절챌린지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은 201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회의(Rio+20)에서 기아근절챌린지(Zero Hunger Challenge)를 천명했다. 그 후 기아와 영양실조 근절을 실현하는 뜻을 품은 수많은 실행가들의 활약은 왕성하게 늘었다. 기아근절챌린지의 목적은 첫째, 2030 의제의 약속을 지키려면 식량 안보, 영양,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복원력이 있는 농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것과 둘째, 모든 사람에게 빠짐없이 식량을 분배하는 체계를 만드는 집단행동을 독려하고 협력하고 촉진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기아근절챌린지에 고무된 국가들은 행동에 나섰고, 식량과 영양 확보와 지속 가능한 농업은 세계발전의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와 성격이 비슷한 기아근절챌린지는 여러 원인이 서로 연관된 기아와 영양실조 문제를 통합적으로 대처하도록 권장한다. 종합적인 대처를 주문하는 것은 사람들이 영양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농촌 사회를 일으키는 농업과 식량 체계를 개선하면서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기아근절챌린지는 식량 체계가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기후에 끼치는 악영향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모든 사람이 알맞고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에 근거한 기아근절챌린지의 목표는 야심 찬 2030 의제를 이루는 데 필요한 거대한 변화에 주요하게 기여할 수 있다.

기아근절챌린지는 도시, 정부, 비정부기구, 기업, 유엔 기구, 기금, 프로그램, 연구소, 종교 사회, 자선 단체, 요리사, 학생 등 모든 실행 주체가 기아와 빈곤을 근절하겠다는 공동 목표에 합류하도록 원칙에 근거한 방침을 제시한다. 기아근절챌린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아 근절의 챔피언이 되어서 조직 차원에서 혁신적이고 통찰력 있는 방법을 채택하여 목표한 변혁을 달성해야 한다.

기아근절챌린지는 시민들이 힘을 모아 변화를 주도하고 공약한 지도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세계기아근절 운동에 동참할 길을 모색하기도 한다. 기아근절챌린지는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기아와 영양실조를 근절하고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의 핵심적인 변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사고의 변화를 담고 있다.

컴팩트2025

이 같은 사고의 변화를 보여주는 플랫폼의 다른 사례는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가 이끄는 컴팩트2025(Compact2025)이다. 컴팩트2025는 연구와 지식으로 발전하고 촉진하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실용적, 실

천적 전략을 위한 근거를 실험, 학습, 공유하는 세계적인 지식과 혁신 허브로 제안한다. 혁신을 촉진하고 유요한 연구를 알리고 경험을 통합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과정을 점검하는 일에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콤팩트2025는 여러 부문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존의 이니셔티브와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보강하는 공간을 제공한다.

국가는 근거와 격차를 확인하는 연구자와 정책수립자를 연결하여 국가와 지방 단위에서 이행할 목적으로 효과적인 실행 로드맵을 다듬고 실행하는데 콤팩트2025를 이용할 수 있다. 배울 점이 있는 성공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 효과적인 사회 보장 프로그램과 영양 개입을 확대했더니 빈곤과 기아, 영양 부족이 극감했다. 중국에서는 영양가 있는 식량을 생산하고 구매하도록 소규모 경작 농부들을 도왔더니 농촌 지역 인구의 소득이 증대했다. 브라질의 사회 보장 중심 전략이나 중국의 소규모 농업인 중심 전략과 같은 경험은 학습 곡선을 단축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채택해서 시행할 수 있는 모범을 제공한다. '건강한 사람들'(Nourishing Millions: Stories of Change in Nutrition)과 세계영양보고서(Global Nutrition Report) 같이 콤팩트2025를 보완하는 국제식량정책연구소의 여러 프로젝트는 영양 성공 사례를 소개하여 국가와 지역 간의 국경을 뛰어넘는 배움을 장려한다.

이 같은 지식 공유는 기아 근절과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원대한 통찰과 가치를 마련한다. 이런 프로젝트들은 여러 실행가를 결집해서 국가의 실행을 지원하는 잠재력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강조한다.

그러나 두 가지 사례 외에도 모든 이해관계자가 인류의 식량 안보와 영양을 보장하겠다는 관점에서 식량 안보와 영양 주제를 폭넓게 검토하고 공동으로 정책과 모범을 개발, 지지, 추천하는 혁신적인 다수이해관계자 구조를 갖춘 세계식량안보위원회(CFS)를 비롯한 여러 사례가 많다. 더구나 영양증진(SUN) 운동에 참여한 57개국 지도자들은 영양실조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영양증진 운동이 시작된 2010년부터 영양증진 국가들과 점점 더 다양해지는 이해관계자들이 교류하는 장이 열렸다. 영양실조와 싸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주도하여 자국의 고유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국가적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기도 했다.

자료의 역할

유엔 사무총장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는 기술이라고 믿고 디지털 격차를 줄여줄 것을 기술 산업에 촉구한다. 믿을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야 의사 결정과 석명이 가능하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자료와 데이터 수집에서 전통적인 전략을 보완할 수 있는 신기술과 혁신이 가능한 자료 혁명이 필요하다. 소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려면 무엇보다 나이, 젠더, 수입 등으로 분류한 완전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데이터

글로벌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ata)은 극심한 빈곤을 근절하고 기후변화와 싸우고 인류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유용하고 새로운 공개 자료를 계속 발의해서 자료에 근거한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모바일 기술은 이미 극빈 국가와 극빈 사회를 비롯한 전 세계 곳곳의 사회를 바꾸어 놓았다. 모바일 기술은 여권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재정 독립을 가속화하고, 교육을 개선하고, 농업 생산을 증대하고, 보건을 증진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휴대전화 덕분에 선거를 감시하고 정부에 책임을 끝까지 묻고 심지어 자연 재해에서 인명을 구하기까지 한다. 지금 모바일 산업은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국가 정부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돕는 위치가 되었다.

유엔의 글로벌펄스(Global Pulse) 이니셔티브는 휴대전화로 생산한 데이터로 기아와 질병을 파악해서 확산을 막고, 위기 대응을 알리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기술 산업은 정부와 국제 사회와 공조해서 연결성을 높이고, 접근 장애를 낮추고, 기술력이 약한 사회와 더불어 기술을 개발함으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실행을 크게 도울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동시에 인도주의와 개발 목적에 따라 자료를 책임 있게 사용해야 가능한 일이다.

책임성

데이터와 정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실행하는 중요한 도구일 뿐 아니라 책임성을 요구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 14년 동안 진행 과정을 감독하려면 모든 단계에서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꼭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목표지표 기구간전문가집단(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은 기아 근절을 비롯한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걸쳐서 진행 과정을 감독할 수 있는 지표를 정했다.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알맞은 지표를 포함한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민과 지도자의 관계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책임성의 핵심을 이룬다. 국가의 후속 조치와 검토 절차는 종합적이고 참여적이고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정부에 책임을 묻는 시민들을 지원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포괄적인 다수이해관계자의 대화를 돕는 세계식량안보위원회(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는 지속가능발전목표 2를 비롯한 여타 목표들을 위해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의 국제적인 후속 조치와 검토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세계식량안보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고위정치포럼에서 세계의 발전을 검토하고 교훈을 확인하고 권고와 지도를 제공하고 새로운 문제와 트렌드를 제시하는 위치에 있다.

맺는말

개발 원조의 중요한 역할을 지속하는 동시에 사회 전체가 개발에 참여하여 무엇이든 지속가능발전의제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의제의 실행에 꼭 필요한 시민들의 지지를 확보하여 개발 협력을 개혁할 때가 왔다. 기아 근절 목표를 이루려면 인간의 존엄을 중심으로 2030 의제를 실행해야 한다. 지구와 인류를 보호하는 기후에 적합한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이 있는 농업과 식량 체계가 필요하다.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새롭게 모색하는 동시에 항상 개인과 사회의 역량과 회복력을 높여야 한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토대를 둔 종합적이고 보편적인 기아 근절 목표는 야심 찬 지속가능발전의제를 실현하는 거대한 변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가난과 기아의 기저원인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으므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를 성취하는 것이 신속히 기아를 근절하는 가장 적절하며 확실한 길이다. 각계각층이 협력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어떤 행동에서도 정직과 공정, 정의의 원칙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변혁하고 인류의 가난과 기아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근절할 수 있다. 야심 찬 목표일지는 모르나 결코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이 목표를 현실로 바꿀 수 있다.



캄보디아 타케오 주 자기 논에서 일하는 마흔세 살의 세스 스언. 현지 비정부기구 CEDAC(Centre d' Etude et de Développement Agricole Cambodgien)는 지속가능하며 경제적으로 사용할 만한 농업 기술을 공유하기 위한 농부들의 자조 이니셔티브 (self-help initiative)를 돕고 있다.

정책 권고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기아를 근절하고 식량 안보를 이루고 영양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진흥하겠다'는 지속가능발전목표 2를 달성하려면 나머지 목표 16개도 나란히 달성해야 한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를 바탕으로 기아 근절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래에 소개한다.

정부 전체가 적극적으로 기아 근절에 주력한다

- 기아, 식량 안보, 영양,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목표와 지표를 활용하여 기아 근절을 위한 조치(action)를 국가 발전 계획에 통합하고 국가 상황에 적합하며, 적절한 재정을 지원한다.
- 재무부와 기획부와 협력하여 기아 근절에 필요한 국가 예산을 책정하고 장기적인 자원 조달 수단을 마련해서 자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한다.
-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일관한 국내외 정책으로 빈곤과 영양실조를 줄이는 목표를 성취한다.
- 농업, 영양, 보건, 사회 보장, 교육, 식수와 위생 시설(WASH)을 포함하는 주요 부문과 프로그램들을 조직하여 기아 근절을 실현한다.
- 기아에 허덕이는 국가는 빈곤을 퇴치하고 식량과 영양을 확보하는 농업 정책에 집중한다.
- 식량의 생산과 소비에 영향을 주는 농업과 환경, 사회 정책을 펼쳐 건강하고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섭식을 장려한다.

식량 체계의 변화로 세상을 변혁한다

- 사람을 중시하고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하고 농업 부문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혁신적인 방법을 증진한다.
- 인프라, 기술, 교통, 분배 시스템을 개선하여 식량 감손을 최대로 줄이고 유효한 정책을 세워서 식량 낭비를 줄이며 자연 자원을 보존한다.
- 농업 정책 전반에서 에너지와 물질 사용을 위한 바이오매스 생산보다 식량과 영양 안보를 위한 농업 생산을 중시한다.
- 세계 남반구(Global South) 농업 시장의 발전을 가로막지 않도록 세계 북반구(Global North) 농업 정책을 완전히 재정립한다.
- 소규모 경작 농부들이 토지, 시장, 지식,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농업 생산량을 증대한다.

아무도 저버리지 않는다

- 국제 무역과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불평등에 대처한다.
- 가장 소외된 인구 집단의 식량과 영양 안보를 개선하는 국내외 정책과 프로그램을 만든다.
- 여성을 비롯한 소외 집단의 정치와 경제, 사회 참여를 강화한다. 정부는 교육, 보건 서비스, 생산 자원, 의사 결정 과정에서 불평등을 조장하는 차별적인 법률, 정책, 관행을 전부 철폐해야 한다.

측정과 감시, 책무성 요구

- 국제 단체들과 각국 정부는 나이, 젠더, 소득 수준, 인종, 민족, 이주 신분, 장애 정도, 지리적 위치로 완전히 분류된, 불우한 집단에 대한 차별을 추적하여 다룰 수 있게 하는 독립적이며 공개적인, 신뢰할 만하고 시기적절한 데이터의 수집을 지원해야 한다.
- 산업국가에서는 각국의 정책이 전 세계, 특히 세계 남반구(Global South)에 주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 국제단체와 시민사회는 참여와 투명성이 보장된 국가적 후속 조치와 검토 과정을 통해 정부에 책무성을 요구해야 한다. 모든 정부가 시민사회를 위한 자유롭고 우호적인 환경을 지지할 때 가능한 일이다.

PARTNERS



Who we are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는 개발도상국의 식량 결핍을 해결할 대안 전략과 정책을 찾아서 분석한다. 특히 저소득 국가와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빈곤을 줄이고 기아와 영양실조를 근절하는 정책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What we do

국제식량정책연구소는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확보, 건강한 식량 체계 증진, 시장과 무역 개선, 농업 변화, 회복력 증진, 제도와 거버넌스의 강화 등 여섯 가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젠더의 역할은 여섯 가지 연구 분야 모두에 포함된 공통 주제이다.

Our vision

기아와 영양실조가 없는 세상.



Who we are

컨선월드와이드(Concern Worldwide)는 고통을 줄이고 극심한 빈곤을 근절할

목적으로 1968년 아일랜드에서 설립된 비정부, 국제 인도주의 단체이다. 컨선월드와이드는 아일랜드, 영국, 미국, 한국에 사무실을 두고 3,500명이 넘는 헌신적이고 재능 있는 직원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28개국에서 활동한다.

What we do

컨선월드와이드는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크게 향상하고 컨선월드와이드의 지속적인 지원 없이도 스스로 꾸준히 진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난한 사람들과 협력할 뿐 아니라, 빈민이 기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의 건설이라는 같은 뜻을 품은 국내외 파트너들과 협력한다. 컨선월드와이드는 장기적인 개발 사업을 펼치고 긴급 상황에 대응하고 개발 교육과 애드보커시 활동을 통해 빈곤의 기저원인을 해결하고자 한다.

Our vision

빈곤과 공포, 암재 속에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세상. 모든 사람이 품위 있게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장수하고 창조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와 선택이 있는 세상. 모든 사람이 존엄을 잃지 않고 존경을 받는 세상.



Who we are

세계기아원조(Welthungerhilfe)는 독일 최대의 비정부 구호 단체이다. 1962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산하에서 설립되었다. 당시에는 기아에 대

항하는 첫 글로벌 이니셔티브 중 하나인 기아탈출 캠페인(Freedom from Hunger Campaign)의 독일지부였다.

What we do

세계기아원조는 기아와 빈곤과 싸운다. 세계기아원조는 불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목표이다. 긴급 재난 구호에서 장기적인 개발 협력 사업까지 통합적인 구호 활동을 제공한다. 2015년에 387개 해외 사업을 통해 40개국에서 사람들을 지원했다.

How we work

자립을 돕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현지 파트너 조직과 더불어 상향식 구조를 강화하고 장기적인 사업 성공을 도모한다. 아울러 우리는 대중에게 정보를 알리고 국내외 정책의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는 이렇게 기아와 빈곤을 낳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싸운다.

Our 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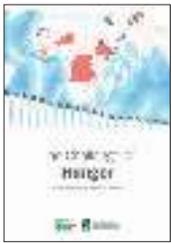
모든 사람이 기아와 빈곤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존엄과 정의의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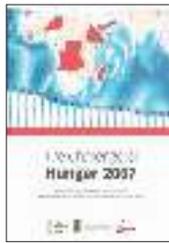
CJ는 기아종식을 위해 컨선월드와이드와 함께합니다.

11 YEARS OF TRACKING WORLD HUNGER

세계기아지수는 2006년부터 세계, 지역, 국가별로
기아 실태를 보고해 왔습니다.



전후 국가 아프가니스탄과 시에라리온 사례 연구



급성 영양 불량과 만성 기아를 줄이기 위한 기아지수



기아와 빈곤의 악순환



금융 위기와 젠더 불평등



아동 영양 부족 위기



가격 폭등과 과도한 식량 가격 변동 억제



토지, 식수, 에너지 압박에서 지속 가능한 식량 확보 확보



식량과 영양 안보를 이루는 복원력 증진



보이지 않는 기아의 위협



무력 충돌과 기아의 위협



기아가 없는 세상

홈페이지(www.ifpri.org/ghi/2016)를 방문하면
2016 세계기아지수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GHI 자료에는 연구자와 개발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대화형 지도
- > 공유 가능한 데이터 파일
- > 새로운 어플리케이션과 분석에 재사용할 수 있는 RDF(Resource Description Format)와 OWL(Web Ontology Language)형식의 세계기아지수 링크오픈데이터(LOD)
- > 세계기아지수 SPARQL 엔드포인트

또한 한국어로 된 자료를 원하시면

www.concern.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에서 세계기아지수 보기

구글북스, 구글플레이, 아마존, 아이튠즈에서 보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IMPRINT

Deutsche Welthungerhilfe e.V.
Friedrich-Ebert-Straße 1
53173 Bonn, Germany
Tel. +49 228-2288-0
Fax +49 228-2288-333
www.welthungerhilfe.de

Chief Executive Officer:
Dr. Till Wahnbaeck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IFPRI)
2033 K Street, NW
Washington, DC 20006-1002, USA
Tel. +1 202-862-5600
Fax +1 202-467-4439
www.ifpri.org

Director General:
Dr. Shenggen Fan

Concern Worldwide
52-55 Lower Camden Street
Dublin 2, Ireland
Tel. +353 1-417-7700
Fax +353 1-475-7362
www.concern.net

Chief Executive Officer:
Dominic MacSorley

Editors: Andrea Sonntag (Senior Adviser Right to Food and Nutrition Policy, Welthungerhilfe), Fraser Patterson (Policy and External Relations, Welthungerhilfe), Olive Towey (Head of Advocacy, Ireland & EU, Concern Worldwide), Jennifer Thompson (Advocacy Officer for Hunger, Concern Worldwide), Klaus von Grebmer (Research Fellow Emeritus, IFPRI), and Shazia Amin (Editor, IFPRI)

Recommended citation: K. von Grebmer, J. Bernstein, D. Nabarro, N. Prasai, S. Amin, Y. Yohannes, A. Sonntag, F. Patterson, O. Towey, and J. Thompson. 2016. 2016 Global Hunger Index: Getting to Zero Hunger. Bonn, Washington, DC, and Dublin: Welthungerhilfe,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and Concern Worldwide.



Design: David Popham (Designer, IFPRI)

Design development: Original design by muelhausmoers corporate communications gmbh, Cologne, Germany

Printing: DFS Druck, Cologne

Authors: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Klaus von Grebmer (Research Fellow Emeritus), Jill Bernstein (Independent Consultant), Nilam Prasai (Data Curator), Shazia Amin (Editor), Yisehac Yohannes (Research Analyst); United Nations: David Nabarro (Special Adviser to the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on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limate Change); Welthungerhilfe: Andrea Sonntag (Senior Adviser Right to Food and Nutrition Policy) and Fraser Patterson (Policy and External Relations); Concern Worldwide: Olive Towey (Head of Advocacy, Ireland & EU) and Jennifer Thompson (Advocacy Officer for Hunger)

Ordering number: 460-9509

ISBN: 978-0-89629-226-0

DOI: <http://dx.doi.org/10.2499/9780896292260>

Cover photography: Men gather straw on their farm in the rural area of Sokota, Ethiopia. Panos/Sven Torfinn 2008.

Other photo credits:

Page 2: Welthungerhilfe/Eva Haeberle 2011; page 6: Panos/Sven Torfinn 2016; page 10: NOOR/Pep Bonet 2011; page 22: Welthungerhilfe/Bernhard Huber 2013; page 28: Welthungerhilfe/Florion Kopp 2007.

Acknowledgments:

개념을 정리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검토해준 독립 컨설턴트 도리스 바이스만에게 특별히 감사합니다. 자료 집계 전반에서 협조를 아끼지 않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같은 기구의 통계부서(ESS), 세계보건기구(WHO)에 감사합니다. 국제식량정책연구소에서 거슨 페더가 이끄는 동료심사위원회에서 이 보고서를 검토해주었습니다. 보고서 작성 초기에 중요한 기여를 한 산드라 인에게도 감사합니다.

Disclaimer: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세계기아원조(WHH), 컨설턴트와이드는 보고서에 나타난 국경과 명칭, 지도의 위치를 공식적으로 추천하거나 승인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www.ifpri.org/ghi/2016)를 방문하면
2016 세계기아지수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Deutsche Welthungerhilfe e. V.

Friedrich-Ebert-Stra ß e 1
53173 Bonn, Germany
Tel. +49 228-2288-0
Fax +49 228-2288-333
www.welthungerhilfe.de
Member of Alliance2015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2033 K Street, NW
Washington, D.C. 20006-1002, USA
Tel. +1 202-862-5600
Fax +1 202-467-4439
www.ifpri.org

Concern Worldwide

52-55 Lower Camden Street
Dublin 2, Ireland
Tel. +353 1-417-7700
Fax +353 1-475-7362
www.concern.net
Member of Alliance2015

